

&lt;자료&gt;

## 성서에 사용된 정의와 관련된 용어들의 번역에 대하여 - ‘미쉬파트’, ‘체다카’, ‘체데크’, ‘디카이오쉬네’의 용례를 중심으로 -

김창락\*

### 1. 방향 잡기

“좋은 게 좋다.” 좋은 말이다.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무엇이 좋은 것이냐는 실제적 문제를 판가름하는 사태에 직면해서는 십인 십색, 백인백색으로 서로 충돌하는 답변이 엇갈리기 마련이다. 사회의 기강이 무너져서 평화로운 삶의 질서가 위협당할수록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이러한 경우에 ‘정의’라는 것은 사회의 옹고고설킨 모든 병폐를 일거에 척결하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보도(寶刀)로 갈급된다. 이러한 정의를 명분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환호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악, 시비를 판별할 척도로서의 정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라는 이름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플라톤의 『대화』에서 정의의 절대적 가치를 논증하려는 소크라테스에게 트라시마쿠스(Thrasymachus)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반론을 폈다. 즉 정의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그들의 이익을 유지·관철하기 위하여 피지배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굴레를 포장하는 이름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강자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네의 이익을 챙기는 불의를 자행하는 현실의 한 단면을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었다. 아득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사회학 또는 정치학 분야에서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론에서부터 롤스(J. Rawls)의 공정 정의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사하거나 상치되는 정의론이 제시되었다. 이 갖가지 정의론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의론을 통합하는 완벽한 정의론을 수립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설령 그러한 종합적인 완벽한 정의론이 이론상으로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힘과 권위를 가진 실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 전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고래로부터 흔히 정의는 두 눈은 검은 띠로 가리고 한 손에는 천칭(天秤)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여신상으로 상징되었다. 두 눈을 검은 띠로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의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대변한다. 한 손에 들고 있는 천칭은 공적과 과실, 선행과 비행 사이의 차도(差度)를 측정하는 엄격성을 대변한다. 다른 한 손에 쥐고 있는 칼은 정의 수행의 강제성을 대변한다. 이 세 가지는 정의의 주요한 속성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 정의의 여신상은 정의를 가려내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며 그 가려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말하지마는 막상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성서가 증언하는 정의를 구명하는 데 있다. 원래 정의는 신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성서 번역의 과오로 말미암아 정의에 대한 증언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으며 그릇된 교의적 주석으로 말미암아 정의에 대한 증언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다는 서글픈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성서학의 엄숙한 과제이다.

## 2. 우리말 성서에 사용된 ‘정의’를 뜻하는 개념들

우리말 번역 성서는 가장 널리 통용된 『개역』<sup>1)</sup>을 기준으로 삼되 이것과 상이한 번역본은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언급할 것이다. ‘정의’라는 낱말은 『개역』에서 단지 12회만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신약성서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개역』에서 ‘공의’(公義)라는 명사가 ‘정의’라는 개념으로 86회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약성서에는 단지 3회만 사용되었다. 『개역』에서 ‘공의’라는 낱말이 ‘정의’, 더 정확하게는 ‘사회 정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까지 발행된 모든 우리말 사전에는 ‘공의’를 가톨릭교회의 신학적 용어로 취급하여 “선악의 제재(制裁)를 공평하게 하는 천주의 적극품성(積極稟性)의 한 가지”<sup>2)</sup>로 풀이되어 있다. 21세기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비로소 ‘공의’를 “1)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2) (가톨릭)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느님의 적극적 품성. 가톨릭의 사회 정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다.”로 풀이되었다. 그러니까 1911년에 발간된 『구역』<sup>3)</sup>에서부터 ‘공의’가 ‘사회 정의’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지 근 1세기가 지나서야 우리의 국어사전에서 ‘공의’의 그러한 의미가 사전상으로 겨우 공식 승인된 셈이다.

1)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개역 한글판』(1961).

2)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94),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서울: 삼성출판사, 1990), 이승녕 감수, 『새국어 대사전』(서울: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7) 등등.

3) 『개역』의 전신(前身)인 『성경전서』(1911)를 가리킨다.

정의 또는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낱말은 구약 성서에서는 ‘체다카’(קִדְקָדָה)와 ‘체데크’(קִדְקָדָה)이며 신약성서에서는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인데, 『개역』은 ‘체다카’를 157회 가운데서 약 100번<sup>4)</sup> ‘의’(義)로, 약 10번 ‘공의’로, 8번 ‘공평’으로, 7번 ‘정의’로, 5번 ‘의로움’으로, 약 20번 ‘의로운’이라는 형용사로 번역했으며 ‘체데크’를 119회 가운데서 약 50번 ‘의’로, 약 25번 ‘공의’로, 9번 ‘공평’으로, 2번 ‘정의’로 번역했다. 신약성서의 ‘디카이오쉬네’는 92회 가운데서 오직 2번만(행 17:31; 계 19:11) ‘공의’로 번역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의’로 번역되었다. ‘체다카’와 ‘체데크’ 두 낱말에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구약성서에서 ‘정의’와 ‘공의’로 번역된 것이 약 50번이며 ‘공평’으로 번역된 것이 약 17회인데 신약성서에서는 ‘공의’로 번역된 것이 단지 2회뿐이며 단 한 번도 ‘정의’로 번역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말 성서의 번역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주요 내용이 신약성서에서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반영하는가? ‘체다카’, ‘체데크’, ‘디카이오쉬네’ 세 용어는 합해서 약 240회 ‘의’로 번역되었다. 우리말 사전에서 ‘의’라는 낱말의 정의(定義)는 현재 우리의 논의와 관련 있는 것만 발췌한다면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1)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 2) 도의(道義).”라고 풀이했으며 민중서림의 『국어대사전』은 “1)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도를 위하여 진력하는 일. 2) 옳은 행위.”로 풀이했다. 첫째 사전의 뜻풀이는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이나 법칙을 부각시킨 것이며 둘째 사전의 뜻풀이는 그러한 기준이나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 자체를 부각시킨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뜻풀이의 어느 쪽도 ‘의’로 번역된 그 모든 자리에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의’(正義)라는 낱말의 정의(定義)는 “1)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 (철학)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한 사회를 구성하고 구성하는 공정한 도리. 3) (철학) 플라톤의 철학에서 지혜, 용기, 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말”<sup>5)</sup>이다. 문제는 이 뜻풀이의 어느 것도 성서에서 ‘정의’(正義)로 번역된 모든 자리에 부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과제는 성서 본문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증언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명(究明)해 내는 것이다.

### 3. 신체의 건강 문제와 사회 정의 문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요건인 때가 있었다. 신청자는 전염병과 같은 악질이 없고 신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4) 빈도수 앞에 ‘약’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것은 낱말 색인 사전에서 빈도를 직접 세는 데 있어서 한두 개의 착오가 있을 수 있었음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5)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서울: 두산동아, 1999).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 건강진단서는 당사자의 건강상태만을 입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는다.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선사업가가 건강불합격 진단서를 받을 경우가 있고 사기꾼, 무뢰한, 폭력배, 테러리스트가 건강합격 진단서를 받을 경우가 있다. 건강진단서가 개인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입증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어떠한 인간성의 소유자이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신원증명서이다. 건강진단서이건 신원증명서이건 이 둘은 한 개인 당사자의 신체의 건강상태나 그 당사자의 사회적 그물망 속에 그려진 인물상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이 둘 사이의 공통분모는 그 개인 당사자이다. 성서에 사용된 수많은 경우의 ‘의’를 추상명사로 이해하여 ‘의로움’ 즉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름’, ‘결점이 없음’을 뜻한다고 볼 때에는 개인이 사회적 공백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만 의롭다는 판정을 받거나 기껏해야 그 개인의 윤리적, 사회적 관계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으로 곡해될 것이다. 성서에는 이른바 사회 정의(社會正義, the social justice)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아니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의(義), 정의(正義), 또는 공의(公義)라는 용어로 번역된 수많은 곳이 사회 정의를 진술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정의는 정의의 개념을 사회적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다. 즉 사회 정의는 사회의 구조, 제도, 현실이 정당인가 정당하지 아니한가를 문제 삼는다. 건강상태를 판정하거나 신원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표시하는 일정한 기준표가 있으며 신원증명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력에 전과(前科)나 특정한 비행(非行)의 유무와 같은 일정한 척도에 맞추어서 판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 불의한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를 충족시키는 기준표가 있어야 하는데 만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그러한 기준표를 마련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회 정의 실현의 첫째 난관이고 그러한 기준표에 다수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물리적 힘이 자동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정의 실현의 둘째 난관이며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기준표가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철칙으로 굳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 정의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사회 정의 실현의 셋째 난관이다.

예수는 모세의 율법이 제공한 이혼허용 조례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본뜻에 비추어서 부인함으로써 그 당시에 쉽사리 이혼을 당하여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여자들의 신분을 옹호해 주었다. 이것은 여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해방운동이며 사회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부터 사회 정의의 철칙으로 이혼절대 불가라는 법칙을 추출하여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회 정의를 해치는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가 증언하는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작업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정의를 구성하는 내용물을 구축

하는 것은 효과 없는 낡은 방법에 속한다. 그 대신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체결하려고 무슨 행위를 수행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새로운 작업 방법이다.

#### 4. 사회 정의를 수행하는 행위

‘자유’, ‘평등’, ‘평화’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명사인데 반해서 ‘해방’, ‘박해’, ‘봉기’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행위명사(nomen actionis)이다. ‘해방’과 ‘박해’는 ‘해방하다’와 ‘박해하다’라는 타동사에 대응하는 행위명사이고 ‘봉기’는 ‘봉기하다’라는 자동사에 대응하는 행위명사이다. 영어에서 writing이라는 낱말은 행위명사로서 ‘글쓰기’(the act of writing)를 뜻하기도 하고 그 행위의 결과물인 ‘저작물’ 또는 ‘글’을 뜻하기도 한다.

성서가 증언하는 사회 정의를 올바로 포착하는 데는 ‘의’, ‘정의’, ‘공의’ 등으로 번역된 낱말들이 행위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나는 맨 먼저 ‘미쉬파트’(משפט)라는 낱말의 용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낱말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행위명사의 성격을 가장 실감 있게 드러내주기 때문이다.<sup>6)</sup>

‘미쉬파트’는 421회 사용되었는데 『개역』은 ‘공의’로 번역한 것이 42회, ‘의’로 번역한 것이 2회, ‘공평’으로 번역된 것이 31회, ‘공과 의’라는 어구에서 ‘공의’라는 의미로 ‘공’으로 번역한 것이 3회, ‘심판’으로 번역된 것이 26회, ‘재판’으로 번역된 것이 22회, ‘판단’으로 번역된 것이 20회, ‘판결’로 번역된 것이 14회, ‘법도’로 번역된 것이 33회, ‘규례’로 번역된 것이 76회, ‘율례’로 번역된 것이 13회, ‘법’으로 번역된 것이 7회 등등이다. 이상을 유형별로 대별하면 ‘의’ 또는 ‘정의’와 관련된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78회, 법정적 행위의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82회, 법률의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139회이다. NIV 영역본<sup>7)</sup>은 justice로 번역한 것이 94회, right로 번역한 것이 13회, rights로 번역한 것이 4회, judgment로 번역한 것이 24회, judgments로 번역한 것이 11회, cause로 번역한 것이 11회, punishment로 번역한 것이 6회, sentence로 번역한 것이 5회, law로 번역한 것이 5회, regulations로 번역한 것이 11회, ordinances로 번역한 것이 7회 등등이다. 이것을 유형별로 대별하면 ‘정의’의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111회, 법정적 행위의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52회, 법률의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21회이다. AV 영역본<sup>8)</sup>은 239회를 judgment로, 119회를 judgments

6) Jose Porfirio Miranda, *Marx and the Bible, A Critique of the Philosophy of Oppression*, John Eagleson. Maryknoll, trans. (New York: 1974). 이하의 진술을 이 저서의 제 4장의 내용과 대조해 보라.

7)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8) AV: *Authorized Version*. 또는 *King James Version (KJV)*이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흠정역』(欽定譯)이라 부른다.

로, 9회를 cause로, 15회를 right로, 13회를 ordinance(s)로, 3회를 law 등으로 번역했다. 우선 NIV와 AV의 번역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AV가 judgment(s)로 번역한 것이 358회인데 NIV는 겨우 35회뿐이며 NIV가 justice로 번역한 것이 94회인데 AV는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먼저 우리말 성서번역본 다섯 개, 영어 번역본 세 개, 독일어 번역본 하나에서 ‘미쉬파트’가 ‘정의’/‘공의’ 또는 그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9)

#### <표 1> 참조.

<표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구약성서에는 이른바 사법적·사회적 정의와 도덕적·개인윤리적 정의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전문용어가 없다는 사실이다. 영어의 writing이라는 명사 낱말이 1) 쓰기/쓰는 행위(the act of writing)와 2) 쓰기의 결과물(the result of writing), 즉 쓴 것(something that has been written)을 뜻하듯이 구약성서가 사회 정의를 증언하는 데 사용한 중심되는 낱말인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라는 명사는 첫째로 그 낱말들의 어간(語幹)으로 구성된 동사의 행위를 뜻하며 둘째로 그 행위의 결과인 그러한 상태 또는 관계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 ‘미쉬파트’와 다른 한편으로 ‘체다카’/‘체데크’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이지 어감상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미쉬파트’는 ‘체다카’/‘체데크’의 의미와 겹치면서도 나아가서는 ‘재판’, ‘판결’, ‘소송’, ‘권리’, ‘법’, ‘법규’, ‘공정함’ 등등을 뜻하기 때문에 ‘미쉬파트’는 ‘사법적·사회적 정의를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체다카’/‘체데크’는 도덕적·개인윤리적 정의를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그러한 구별을 짓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지만 둘째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이 양쪽 낱말을 어떻게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물음이다.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이 ‘미쉬파트’를 ‘공의’로 번역한 것을 거의 기계적으로 ‘정의’로 바꾸어서 번역했으며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가 나란히 언급되는 자리에서 『개역한글판』이 ‘체다카’/‘체데크’를 ‘의’로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판』은 기계적으로 ‘공의’로 번역했다.

9) 우리말 번역본 다섯은 첫째로 『개역한글판』(1956년), 둘째로 『개역개정판』(1998년), 셋째로 『공동번역 개정』(1999년), 넷째로 『새번역』(2001년), 다섯째로 가톨릭교회의 『성경』(2005년, 이하 가성)이다. 『새번역』은 『표준새번역』의 개정판을 가리킨다. 영역 성서는 첫째로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90), 둘째로 NEB(New English Bible, 1976), 셋째로 JB(E)(Jerusalem Bible in English, 1985)이며 독일어 번역본은 ZB(Züricher Bibel, 1942)이다. 영역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righteousness로 번역되는 ‘체다카’ 또는 ‘체데크’가 ‘미쉬파트’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 ] 속에 넣어서 제시해 놓았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물음의 하나는 우리말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용어가 개념상으로 엄격히 구별될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두 개념이 구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두 개념을 ‘체다카’/‘체데크’와 ‘미쉬파트’에 각각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개역개정판』의 공적을 굳이 지적한다면 그것은 ‘의로움’이라는 인격적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곡해되기 쉬운 ‘의’(義)라는 낱말을 ‘공의’라는 낱말로 교체함으로써 대인(對人)이나 대사회(對社會) 관계의 올바른 상태를 뜻하는 개념으로 바꾸어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역개정판』은 이러한 의미의 모든 ‘의’를 일관되게 모두 다 ‘공의’로 교체하지 못했다. 가톨릭교회의 『성경』은 ‘공의’ 또는 ‘정의’를 뜻하는 ‘미쉬파트’를 거의 모두 일관되게 ‘공정’(公正)으로 번역했다. ‘공정’, ‘공정성’, ‘공정함’이라는 성질 또는 원리는 성서에서 단지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미쉬파트’를 실현하는 수단 또는 원칙으로 지칭될 따름이지 ‘미쉬파트’의 내용 그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영역 성서는 일반적으로 ‘미쉬파트’를 justice로, ‘체데크’/‘체다카’를 righteousness로 번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justice 대신에 what is just라는 명사절로, righteousness 대신에 what is right라는 명사절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 구별은 철칙으로 준수되지는 않는다. 욥기 32:9와 34:4의 ‘미쉬파트’를 『NRSV』, 『NEB』, 『NIV』는 what is just로 번역하지 않고 what is right로 번역했다. 또 『NEB』와 『JB(E)』는 욥기 37:23의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각각 righteousness와 justice, equity와 saving justice로 번역했다. 이와 같이 개념을 뒤바꾸어서 적용한 예는 시편 25:9[NRSV]; 시편 37:30[JB(E)]; 잠언 21:7,15[JB(E)]; 미가 3:1[NEB, JB(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사무엘하 8:15와 역대상 18:14의 ‘체다카’를 justice로(NEB, JBE), 욥기 37:23의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각각 righteousness와 justice로 바꾸어서 번역하기도 했다(NEB). 특별히 주목할 것은 ‘체다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에 『JB(E)』가 saving justice로 번역하여 그 낱말의 행위적 성격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이다(욥 37:23 외에도 시 36:6; 72:1; 89:14; 97:2; 사 1:21, 27; 33:5; 51:4; 56:1; 59:14; 미 7:9). 『NEB』와 『NRSV』는 미 7:9의 ‘체다카’를 justice와 vindication으로 각각 번역했다.<sup>10)</sup>

셋째로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는 ‘...와’(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거나 부연적(敷衍的)인 병행절(parallelismus membrorum)에 사용된 경우가 57회나 된다.<sup>11)</sup> 이러한 경우의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는 각각 별개의 다른 의미를 나

10) 영역 성서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서도 단일한 번역본 안에서 두 개념이 뒤바뀌어서 번역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개역한글판』은 욥 27:2와 34:5의 ‘미쉬파트’와 29:14의 ‘체다카’를 다같이 ‘의’(義)로 번역했으며 욥 37:23; 잠 2:9; 겔 45:9의 ‘체다카’를 ‘공의’로, 렘 22:2; 23:5; 33:15; 암 5:7, 24; 6:12의 ‘체다카’를 ‘정의’로 번역했다. 『개역개정판』은 욥 34:5의 ‘미쉬파트’를 ‘의’로, 욥 34:12; 시 89:4; 사 51:4; 습 3:5의 ‘미쉬파트’를 ‘공의’로 번역했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 원칙의 일관성이 견지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11) 삼하 8:15; 왕상 10:9; 대상 18:14; 대하 9:8; 욥 8:3; 29:14; 37:23; 시 33:5; 36:6; 37:6; 72:1, 2;

타내는 낱말이 아니라 두 낱말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사일의(二詞一意, hendiadys)의 표현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무엘하 8:15; 열왕기상 10:9; 역대상 18:14; 역대하 9:8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행하게 하셨다거나 이스라엘 나라에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실현하게 하셨다는 진술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어떤 두 가지 별 개의 다른 내용의 일 또는 유사하지만 전혀 구별되는 두 가지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윗이 위임 받은 일은 오직 한 가지일 따름이다. 곧 그것은 그의 통치 영역 안에 정의를 두루 실현하는 것이다. ‘체데크’와 ‘미쉬파트’는 참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이며 목표이어야 한다(시 72:2). 예레미야는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행한 히스기야를 좋은 왕의 본보기로 제시했다(렘 22:1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라고 요구하신다(렘 45:9).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때에 ‘미쉬파트’는 ‘체데크’와 완전히 합일된 것을 드러낼 것이다(시 94:15). ‘미쉬파트’와 ‘체다카’는 통치자들만이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량한 사람들도 행해야 되는 것이다(시 106:3; 119:121). 어느 사회가 건전하나 건전하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척도는 ‘미쉬파트’와 ‘체다카’의 유무이다(사 1:27; 32:16; 33:5; 59:9; 59:14; 겔 45:9; 암 5:7, 24; 6:12).

의사가 신체의 건강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 신체 상태의 어느 한 가지, 예를 들어 체중이나 혈압이나 혈당의 일정한 수치를 판단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듯이 ‘미쉬파트’와 ‘체다카’는 성서에서 인간 사회의 정상 여부를 판정하는 근본적인 척도로 제시되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상을 규탄하기를 “너희는 ‘미쉬파트’를 쓸개로 바꾸며 ‘체다카’의 열매를 쓴 속으로 바꾸었다”(암 6:12)고 했으며 “너희는 ‘미쉬파트’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체다카’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암 5:7)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비하는 길은 종교적 제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쉬파트’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체다카’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암 5:24)이라 했다. 그런데 이사일의(二詞一意)의 표현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미쉬파트’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모스는 “성문에서 ‘미쉬파트’를 세우라”(암 5:15)라고 했고 예언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죄상을 규탄하기를 “너희는 ‘미쉬파트’를 미워하고 곧은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암 3:9)<sup>12)</sup>라고 했으며 “너희들은 마땅히 ‘미쉬파트’를 알아야만 할 것 아니냐?”(미 3:1)라고 힐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89:14; 94:15; 97:2; 99:4; 103:6; 106:3; 112:5; 119:21; 잠 1:3; 2:9; 8:20; 16:18; 21:3; 전 5:8; 사 1:21, 27; 5:7, 16; 9:7; 16:5; 28:17; 32:1, 16; 33:5; 56:1; 59:9, 14; 렘 4:2; 9:24; 22:3, 15; 23:5; 33:15; 겔 18:5, 19, 21, 27; 33:14, 16, 19; 45:9; 호 2:19; 암 5:7, 24; 6:12; 미 7:9.

12) ‘곧은 것’은 『개역』과 『개역개정』은 ‘정직한 것’으로, 『공동』은 ‘곧은 것’으로, 가톨릭의 『성경』은 ‘올곧은 것’으로, 『새번역』은 ‘올바른 것’으로 번역했다. NRSV와 NEB와 JB(E)는 이 낱말을 ‘미쉬파트’와 동의어로 이해하여 대명사 it로 번역했다. 어쨌든, 이 낱말이 ‘체다카’ 대응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미쉬파트’를 실천하며 인자(仁慈)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 6:8)이라 했다. 예언자 하박국은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고 억압과 분쟁과 갈등에 뒤얽힌 사회의 현실을 규정하기를 “율법이 해이하고 ‘미쉬파트’가 시행되지 못하고 ‘미쉬파트’가 왜곡되는”(합 1:4) 사회라 했으며 예언자 말라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세 사회의 주민들은 “‘미쉬파트’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말 2:17)라는 조롱의 말을 한다고 했다. 시편의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미쉬파트’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했다(시 37:28). 이사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장차 ‘미쉬파트’를 온 세상에 이룩하리라고 예언했다(사 42:1-5). 그러므로 이사야는 선언하기를 “참으로 여호와와는 ‘미쉬파트’의 하나님이시다”(사 30:18하반) 라고 했다. 이 ‘미쉬파트’의 하나님은 두 눈을 검은 띠로 덮고 시퍼런 칼날을 인정사정 없이 마구 휘두르시는 냉정한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사 30:18상반) 분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때로는 대표적으로 ‘미쉬파트’)를 행하는 것은 참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선량한 백성의 책무이며 그것의 유무는 건전한 사회이나 아니냐를 판정하는 척도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구명하지 못했다. 이 글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최종 목표점으로 출발했으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 목표점을 향한 방향만을 겨우 잡았을 따름이다. 정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미쉬파트’나 ‘체데카’/‘체데크’라는 낱말의 개념을 분석하는 데서 밝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겨우 확인했을 따름이다. 몸소 건강을 잃어 본 경험이 있거나 건강을 잃은 사람을 전혀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건강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 또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정의가 무엇인지는 정의에 대립되는 것들과 대조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즉 건강 상태나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악행이나 비행이나 불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것들을 사회 정의라고 일컬어야 한다면 그러한 사회 정의는 현실 사회에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영원한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일찍이 니부어(R. Niebuhr)가 지적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행동에서 때로는 차악(次惡, lesser evil)을 택하는 것이, 비록 그 자체는 선(善)이 아니더라도, 정의로운 행동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이념을 정의의 내용으로 설정해 놓고서 그것에 견주어서 사회 정의를 판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이념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도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합의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성서 전체, 특히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밝히는 방법은 어떠한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위

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5. 정의 구현

성서는 정의와 관련해서 다른 종교적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실을 증언한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 ‘미쉬파트’ 또는 ‘체다카’/‘체데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야곱 중에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셨다(시 99:4). 하나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미쉬파트’(복수형)와 ‘체다카’(복수형)<sup>13)</sup>를 행하시며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시 103:6). 명철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애와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다(렘 9:24). 하나님은 ‘체다카’와 ‘미쉬파트’를 사랑하는 분이시다(시 33:5). 하나님의 ‘체다카’는 우람찬 산줄기와 같고 하나님의 ‘미쉬파트’는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으며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구해 주신다(시 36:6). 하나님은 ‘미쉬파트’를 사랑하시므로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시 37:28). ‘체데크’와 ‘미쉬파트’는 하나님의 보좌의 바탕이다(시 89:14). 하나님은 고난 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미쉬파트’를 베푸시는 분이시다(시 140:12). 하나님은 그 행하신 ‘미쉬파트’로 높임을 받으시며 그 행하신 ‘체다카’로 그의 거룩하심이 입증되시는 분이시다(시 5:16).<sup>14)</sup> ‘미쉬파트’를 줄자로, ‘체다카’를 저울로 삼아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사 28:17).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미쉬파트’와 ‘체다카’로 채워 주신 분이시다(사 33:5).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곧 진실과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 된다(렘 4:2).<sup>15)</sup>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라고 명령하신다(겔 45:9).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는 하나님이 직접 실현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기쁨부어 세우실 대망의 왕 메시아가 실현할 일이기도 하다. 장차 태어날 그 왕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미쉬파트’와 ‘체다카’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사 9:7). 그 왕은 ‘미쉬파트’를 추구하며 신속하게 ‘체데크’를 행할 것이다(사 16:5). 그 왕은 ‘체데크’로 통치할 것이며 그의 방백들은 ‘미쉬

13) 이 두 낱말이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은 그러한 구체적 행위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NEB와 ZB 이 첫째 낱말을 righteousness in his acts와 Taten des Heils라는 복수형 명사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에 주목하라.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첫째 낱말을 ‘의’와 ‘공의’로 번역하지 않고 ‘의로운 일’과 ‘공의로운 일’로 번역한 것에 주목하라.

14) 여기에 사용된 ‘미쉬파트’와 ‘체다카’는 그의 속성을 나타내는 성질명사가 아니라 그의 행동을 뜻하는 행위명사로 이해해야 한다.

15) 즉 이 말은 이 세 가지 일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파트'로 다스릴 것이다(사 32:1). 그 왕은 못 민족에게 '미쉬파트'를 일으킬 것이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므로써 '미쉬파트'를 참되게 일으킬 것이며 끝내 세상에 '미쉬파트'를 세울 것이다(사 42:1-4). 그 왕은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실현할 것이다(렘 23:5; 33:15).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역사적인 허공을 향해서 하나의 보편타당한 이상적인 도덕적 원리로서 선언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적 현실 속에 처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처지를 겨냥하여 특정한 사람들의 귀속에 경고음으로 통고된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1 나 여호와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 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2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네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과 함께 나 여호와와 하는 말을 들어라. 3 나 여호와와 말한다. 너희는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렘 22:1-3)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는 것,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것은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는 일에 부연된 내용이 아니라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는 일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 다리우스 왕 사년 아홉째 달, 나흘날에 예언자 스가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8 여호와께서 스가라에게 말씀하셨다.  
 “9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참된 '미쉬파트'를 시행하여라.<sup>16)</sup>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슥 7:8-10)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것,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미쉬파트'를 시행하는 일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 이들이 처한 사정을 외면하고 '미쉬파트'와

16) 이 구절의 정확한 주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체다카’를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쉬파트’와 ‘체데카’/‘체데크’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위임된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마땅한지는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72편의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다.

1 하나님,

왕에게 당신의 ‘미쉬파트’를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당신의 ‘체다카’를 내려주셔서,<sup>17)</sup>

2 그가 당신의 백성을 ‘체다카’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sup>18)</sup>

당신의 불쌍한 백성을 ‘미쉬파트’로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sup>19)</sup>

3 ‘체다카’ 안에서<sup>20)</sup>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줄 것입니다.

작은 언덕들도 그리 할 것입니다.

4 그는 가난한 백성을 구하며<sup>21)</sup>

궁핍한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는 억압하는 자를 쳐부술 것입니다.

...

12 진실로 그는,

궁핍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내며,

도울 사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건져 냅니다.

17) 이 곳의 ‘체다카’를 어떤 낱말로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번역본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체로 ‘의’, ‘공의’, ‘정의’, righteousness, Gerechtigkeit라는 거의 공통적 의미의 낱말로 번역된다. 그러나 ‘미쉬파트’를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왕의 최고 통치기능을 사법적 판결 행위로 간주하는 사람은 이 낱말을 ‘판단력’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개역』, 『개역개정』, 『새번역』이 ‘판단력’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미쉬파트’와 ‘체데크’가 각각 사용된 병행절은 두 개의 다른 사상을 표현하는 대립적 병행절이 아니라 반복적, 부연적(數衍的) 병행절이다. 그렇다면 이 ‘미쉬파트’를 ‘체다카’와 같은 계열의 의미로 번역해야 마땅하다.

18) ‘딘’이라는 동사는 ‘판결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스리다’(욥 36:31; 숙 3:7)라는 의미도 있다. 왕의 통치기능을 사법적 재판 행위에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면 ‘판결하다’라는 국한된 의미보다는 ‘다스리다’라는 포괄적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치하다’로 번역한 가톨릭의 『성경』의 번역이 가장 적절하다.

19) 2절도 부연적 병행절이다. 이 곳의 ‘미쉬파트’는 1절의 ‘미쉬파트’와 똑같은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의 ‘미쉬파트’를 ‘판단력’으로 번역한 번역본들은 2절의 ‘미쉬파트’를 ‘공의’(『개역』, 『새번역』), ‘정의’(『개역개정』)으로 일관성 없이 번역했다. NRSV와 NEB는 일관성 있게 두 곳 다 justice로 옳게 번역했다.

20) in righteousness 또는 through righteousness.

21) ‘구(救)하다’는 ‘샤파트’를 번역한 것이다. ‘판결하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신원하다’(『개역』), ‘억울함을 풀어주다’(『개역개정』), ‘권리를 보살피다’(『성경』, defend the cause of(NRSV), Recht schaffen(ZB)라는 번역은 문맥에 잘 부합된다. 4절이 부연적 병행절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둘째 문장의 동사 ‘야샤’(구원하다)에 어울리게 ‘구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3 그는

약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붙잡히 여기며,  
 궁핍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합니다.

14 그는

억압과 폭력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 냅니다.  
 그는 그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깁니다.(시 72:1-14)

1-2절과 마찬가지로 3-14절도 기도 형식의 간구문(懇求文)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3절 이하의 기도의 효력으로 생기는 결과를 예측해서 기술하는 서술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간구의 내용은 두 핵심어에 요약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쉬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이다. 하나님은 몸소 역사에 개입하셔서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이루시고 그의 대행자들이 이것을 수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대행자인 왕이 하나님의 이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중한 것이다. ‘미쉬파트’와 ‘체다카’는 왕의 통치행위의 최고 근거(準據)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의 통치의 최고 목표인 동시에 절대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사법적인 판결 기능은 왕의 통치행위에 속하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유일한 최고의 기능은 아니다. 그러므로 왕이 간구한 ‘미쉬파트’와 ‘체다카’가 재판상의 판결 행위에만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가 소송 사건의 공정한 판결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2절의 ‘샤파트’라는 동사의 의미는 ‘판결하다’보다는 ‘다스리다’이다.<sup>22)</sup> 4절의 왕의 구원 행위는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억압하는 자를 쳐부순다’는 것은 소송의 상대방에게 패배를 안긴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일 수 없다. 그는 소송쟁의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사회의 약자들의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미쉬파트’와 ‘체다카’의 적대자이다. 하나님의 ‘미쉬파트’와 ‘체다카’를 통치의 근거로 삼는 왕은 이러한 적대자의 불법적 폭력을, 소송 사건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올바른 행정적 통치력을 동원하여 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12-14절에 나타나는 구원 행위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미쉬파트’와 ‘체다카’/‘체데크’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낱말이 각각 유래한 동사의 근원적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 ‘미쉬파트’의 동사형인 ‘샤파트’(שפט)는 200여회(Niphal형까지 합하여) 사용되었다. AV는 ‘미쉬파트’의 대다수를 judgement(s)로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샤파트’의 거의 모두를 ‘재판하다’(to judge)라는 동사로 번역하고 단지 두 번 ‘복수하다’(to avenge)로 번역했으며

22) 우리말 번역본들과 거의 모든 영역성서들은 룿 1:1; 삼상 7:6, 15; 8:5, 6, 20; 왕하 15:5; 23:22; 대하 26:21의 ‘샤파트’를 ‘다스리다’, ‘치리하다’, rule, govern 등등의 낱말로 번역했다.

Niphal형 동사 가운데서 5개를 ‘국문하다’(to plead)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이와 좀 달리 NIV는 약 150회 가량 ‘재판하다’(to judge)로 번역하고 그 나머지는 ‘지도하다’(to lead)로 15회, ‘통치하다’(to rule)로 14회, ‘다스리다’(to govern)로 6회, ‘옹호하다’(to defend)로 7회, ‘신원하다’(to vindicate)로 4회, ‘구출하다’(to deliver)로 2회, ‘정죄하다’(to condemn)로 1회, ‘국문하다’(to plead)로 1회 등등으로 번역했다. 이와 같이 NIV가 비록 50여회 가량 AV와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하더라도 대다수를 ‘재판하다’(to judge)로 번역했다는 점에서는 AV의 번역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샤파트’의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 큰 의미상의 곡해가 생긴다. 첫째로 ‘재판하다’(to judge)가 ‘샤파트’의 의미의 본령에 속한다는 곡해이고 둘째는 ‘재판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오늘날의 사법제도가 추구하는 이념과 똑같다는 곡해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정의는 상당 부문 최종적으로 사법적 질서를 통하여 구현되는 정의인 경우가 많다. 이것을 사법적 정의라 부른다면, 그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구현된 것인 한, 그러한 사법적 정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성서가 증언하는 정의가 세속적 사법제도가 추구하는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샤파트’가 ‘재판하다/판결하다/판정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무엇을 뜻하며 어느 쪽이 더 근원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을 원수들 손에서 ( )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삼하 18:19)

구스 사람이 와서 아뢰었다. “임금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역적들을 벌하시고 임금을 그들의 손에서 ( )하셨습니다.”(삼하 18:31)

이 두 구절은 똑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인데 ( ) 속에 사용된 똑 같은 동사 ‘샤파트’가 사용되었다. 이 ‘샤파트’를 어떻게 번역해야 의미가 통하겠는가? 이 경우의 ‘샤파트’를 ‘심판하다/판결하다’(to judge)로 번역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뜻이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한 번역본은 하나도 없다. AV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손에서’라는 어구를 ‘원수들에게’로 바꾸어야 했다. 『개역』과 『개역개정판』은 이 AV의 번역을 본받아 ‘왕의 원수 갚아 주신’(19절), ‘원수를 갚으셨나이다’(31절)로 번역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 번역본들<sup>23)</sup>은 ‘deliver/free/save/rescue/구해 주다/구하다/건져주다’는 거의 같은 의미의 동사이며 원문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했다.

23)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1)

GNB: Good News Bible (1993)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5)

- has delivered him from... (NRSV, NIV)
- has freed him from... (NASB)
- has saved him from...(GNB)
- has recued him from (CEV)
- ‘임금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주신’(『공동』)
-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하셨다는’(『새번역』)
- ‘원수들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주셨다는’(『성경』)

NEB는 31절의 번역은 AV를 그대로 따르고 19절은 AV의 번역을 채택하고 나서 거기에 delivered him from his enemies를 덧붙였다. JB(E)는 19절의 이 동사를 ‘has vindicated his cause by ridding him of his enemies’로 번역했고 독일어 번역본들은 모두 ihm Recht verschafft hat gegenüber...로 번역했는데 이러한 번역들은 이곳의 ‘사파트’라는 동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하다’라는 동사에 담긴 사법적 의미를 담아내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을 나타낸다. 시편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 17 주님, 주님께서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 18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시 10:18)

(...하여 주시고)는 ‘사파트’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곳이다.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재판하신다/심판하신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V는 이 동사를 ‘to judge’로 번역했고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AV의 번역을 따르되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심판하다’는 말이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다’로 살짝 바꾸어 번역했으며 JB(E)도 이와 유사하게 to give judgment for...로 번역했다. NRSV는 to do justice for...로, NEB는 bringing justice to...로, NIV는 defending...으로, NASB는 to vindicate...로, GNB는 judge in their favor로, CEV는 defend...로, ZB는 Recht zu schaffen으로 번역했다. 『공동』은 ‘권리를 찾게 하시고’로, 『새번역』은 ‘변호하여 주시고’로, 『성경』은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로 번역했다. AV를 제외한 모든 번역본들은 하나님이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개입하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 JB(E), NASB, GNB는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고 NRSV, NEB, NIV, ZB, 『공동』, 『성경』, 『새번역』, ZB는 반드시 재판이라는 사법적 과정과 연관함이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14절)라는 고백의 내용과 “주님께서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

원을 들어주십니다...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17절)라는 고백의 내용은 반드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폭력에 쓰러지는 가련한 사람, 압제 당하는 연약한 사람, 학대당하는 억울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현장에 바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곳의 ‘샤파트’를 ‘재판하다’라는 의미에 옮아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샤파트’라는 동사가 ‘먼저 사법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무죄를 확인한 후에 그들의 권리를 찾아준다거나 그들을 억압자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이는 해석이다.

시편 96편과 98편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리는 시다.

2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킨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

11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12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13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그의 진실하심으로 못 백성을 (...하실) 것이다.

(시 96)

1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2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시고,  
그의 정의를 못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

...

7 바다와 거기에 가득한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 치듯 큰소리로 환호하여라.  
9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못 백성을 공의로 (...하실) 것이다.(시 98)

이 두 시가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는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 사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한다. ()안에 들어가는 동사는 ‘샤파트’이다. AV, NEB, NRSV, NIV, NASB, JB(E)은 judge로, 『개역한글판』은 ‘판단하다’로, 『개역개정판』은 ‘심판하다’로 번역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에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이 있다. 하나는 심판이 곧 징벌과 파멸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과 구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다 대망하고 찬양할 대상일 수 없다. 이 두 시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하신다/세상을 ...하신다/못 백성을 ...하신다’는 것은 땅과 세상과 못 백성을 ‘구원하신다/다스리신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GNB가 이것을 모두 rule이라는 동사로 번역했다. 『공동』은 96:13하의 ‘샤파트’를 이중으로 ‘재판하다’와 ‘다스리다’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스리다’로 번역했으며 『새번역』은 모두 ‘심판하다’로 번역하되 96:13하와 98:9하의 ‘샤파트’를 이중으로 재판하다’와 ‘다스리다’로 번역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왕정이 수립되기까지 약 200여년 간의 부족동맹 기간에는 사회가 위기에 빠질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카리스마를 지닌 사사들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했다. ‘사사’(士師)는 『공동』과 가톨릭의 『성경』에서는 ‘판관’(判官)이라 일컫는다. ‘사사’나 ‘판관’이라는 말은 영어의 judge라는 명사를 번역한 것이다. ‘사사’/‘판관’/judge는 히브리 동사 ‘샤파트’의 분사형 ‘쇼페트’를 명사화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즉 ‘쇼페트’는 ‘샤파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쇼페트’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샤파트’라는 동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결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의 죄악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징벌로 이웃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카리스마적 능력을 부여받은 특정한 인물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세우셨다. 이러한 인물을 일컬어 ‘쇼페트’라 하는데 ‘쇼페트’의 주된 임무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해방을 시킨 이후에 ‘쇼페트’에게 부과된 주 임무는 이스라엘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이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전쟁 영웅들이었다. 최고의 통치자에게 사법적인 권한과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사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법적 권한인 재판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샤파트’의 근원적인 으뜸되는 의미는 ‘1) 해방하다/구출하다 2) 지도하다/다스리다/통치하다’이고 여기에서부터 ‘재판하다/판결하다’라는 세 번째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샤파트’의 주된 의미를 ‘재판하다/판결하다’로 보는 것은 그 근원적 의미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샤파트’의 근원적인 의미가 ‘해방하다/구출하다’이고 여기에 ‘지도하다/다스리다/통치하다’라는 의미와 ‘재판하다/판결하다’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방과 구출의 대상은 사회 내부적으로는 배타적으로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약자, 나그네이고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강한 민족의 폭압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미쉬파트’가 ‘재판하다’의 의미로 확장·결합된 데에는 절반의 진실만이 담겨 있을 따름이다. ‘샤파트’라는 동사에 약자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재판하다’는 동사에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과 꼭 같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일치일 따름이다. ‘샤파트’의 대상은 출발 전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이다. 이와 달리 사법적 용어로서의 ‘재판하다’라는 동사는 어느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지 않는다. 판사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내어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어느 쪽의 권리가 회복·수호되어야 하는지는 판결 이전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성서의 ‘미쉬파트’의 대다수가 ‘재판하다’는 동사로 번역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편부당한 중립적 의미의 사법적 판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편들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을 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샤파트’를 수행하는 주체가 사회적 약자를 편들기 위해서 개입하는 존재들이고 이 ‘샤파트’를 고대하고 찬양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샤파트’는 ‘구원’이나 ‘구원하다/구출하다’라는 낱말들과 같은 문맥에서 거의 동의어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시편 96편과 98편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리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샤파트’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동일한 차원에 올려놓고 찬양했다. 에스겔 34:22에는 ‘내 양 떼를 구원하겠다’는 말과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겠다’는 말이 동의어로 나란히 나온다. 시편 35편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의로 올려퍼진다. 3절에 “나를 추격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하여 주십시오”, 9절에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10절에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23-24절에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미쉬파트’를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송사를 돌봐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씌어 있으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사회적 약자들이 동일한 의미의 축을 구성하고 있다. 시편 43:1절에도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와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나란히 나온다. 시편 67편에도 “온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 주십시오”(2절)라는 간구와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

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4절)라는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러므로 ‘샤파트’가 ‘재판하다/심판하다/판결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자리에서도 이것을 오늘날의 사법제도가 표방하는 것과 같은 중립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편들어서 사회 불의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판정을 내린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성서에는 하나님을 재판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서술한 곳이 많이 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이 작은 솜털 하나에도 바늘이 움직이는 초정밀 전자저울을 들이대어서 각 사람의 선행과 악행 사이의 경중을 불편부당하게 냉엄하게 저울질 하여 구원이나 멸망이냐를 판정내리시는 분으로 제시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편들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으로 제시되었다.

- 1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에서 일어서서  
그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 2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심판하며  
악인들의 편을 들러느냐?
- 3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 4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 ...
- 8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시 82)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신들을 재판하는 장면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가상적 장면이다. 다른 신들이 언제나 악인의 편을 드는 것과 전혀 달리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으로 제시되었다. 시인이 맨 끝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은 “불의를 당하는 우리 약자들을 구원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을 재판관이라는 칭호로 일컫지는 않지만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분으로 칭송한다.

- 7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 8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 9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입니다.
- ...

12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

16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

18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19 주님, 일어나십시오.

...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시 9)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심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의 편파적 개입(9, 12, 18 절)에서 드러난다. 시편 10편은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지는 현실에 개탄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4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잡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

17 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

다.

18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시 10)

시인은 하나님을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며 불쌍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 시편 146편에는 7절의 ‘미쉬파트’를 ‘정의’/‘공의’로 번역하면서도 ‘재판’ 또는 ‘재판하다’라는 낱말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사회 정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예시되었다.

7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행사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8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  
 8 나그네를 지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시 146)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편드는 부류는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이다. 시편 140편에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12절)라는, 시편 113편에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떼떽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7-9절)라는 고백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열거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한데 묶어서 성격짓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불의로부터 해방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편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한 사회적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이 일을 다시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사회 정의라는 용어는 1840년대에 비로소 주조되어 유행되었다. 사회 정의라는 것은 정의의 개념을 사회적 차원에 적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 정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사회 정의를 논의한 것이다. 물론 신구약성서에도 사회 정의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회 정의의 문제가 주요 주제로 등장한다. 구약성서에서 사회 정의를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낱말은 ‘미쉬파트’이고 그 다음으로는 ‘체다카’/‘체데크’이다.

‘미쉬파트’는 ‘샤파트’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를 행위명사(nomen actionis)라 한다. 행위명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그 동사가 뜻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둘째로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구조’(deliverance)라는 행위명사가 의미하는 것은 1) 구조하는 행위(the act of delivering) 2) 구조된 상태(the condition of being delivered, especially rescue from bondage or danger)이다.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샤파트’라는 동사의 행위 주체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이 행위의 대상은 배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이 행위는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불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샤파트’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미쉬파트’는 행위명

사인 경우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1) 사회적 약자들을 해방하는 그 행위 자체 2) 이 행위의 결과인 해방된 상태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전체 사회 구조에 비추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의 그 행위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고 두 번째의 그 행위의 결과는 사회 정의가 실현된 상태라 할 것이다. ‘미쉬파트’를 우리말 성서에서 ‘공의’ 또는 ‘정의’로 번역하거나 영어 성서에서 주로 justice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공의 또는 정의를 실현하는 그 행위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인 공의로움/정의로움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이 행위의 주체인 경우에 ‘나의/당신의/그의 미쉬파트’라는 표현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정의’를 뜻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실현해 놓으신 공의로움/정의로움 사회적 관계나 상태’를 뜻한다. ‘미쉬파트’라는 행위명사가 유래된 ‘샤파트’라는 동사가 어원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페니키아-셈족 언어들에서는 이 동사의 어근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동사의 본래적 의미를 ‘일으켜 세우다/똑바로 세우다’(to set up/to erect)였으리라 추정하기도 한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그 동사 자체의 어근에서 찾아냈다고 오�히려 ‘정의/공의/재판/판결/법도’ 등등의 의미를 가진 명사형인 ‘미쉬파트’로부터 역으로 추적해 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샤파트’가 ‘구출하다/일으켜 세우다/똑바로 세우다’라는 본래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보다 ‘심판하다/판결하다/재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샤파트’에 내포된 이중적 의미가 ‘심판하다/판결하다/재판하다’라는 동사에 내포된 이중적 의미에 더 잘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본래적으로 ‘샤파트’는 사회적 약자를 부당한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구출하여 올바르게 세우는 것,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억울한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불의한 강자를 꺾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 동사가 그 척결의 대상인 불의한 강자를 목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다/징벌하다/단죄하다’를 뜻할 수 있다. 억울한 약자를 편들고 불의한 강자를 꺾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성서번역자들도 이러한 일반적 원리에 순응하여 사회 정의의 실현을 뜻하는 ‘샤파트’를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 동사로 바꾸어서 번역하게 되었다. 이 동사의 의미 생성 과정은 정반대이다. 성서는 사법적인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불의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 후에 율법이 수여되었다. 이 율법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이룩된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그것이 훼손되는 경우에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율법의 원래적 참된 목적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원래적

24)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샤파트’ 참조.

으로 ‘미쉬파트’라 일컬어졌다(출 21:1; 15:25하. 또한 출 18:13-27을 참조하라). 사회적 약자를 사회불로부터 해방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시행하는 임무와 기능이 배타적으로 사법 집행자에게 부과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미쉬파트’가 행위명사로서 1) 정의/공의의 실현 2) 실현된 정의/공의의 상태를 뜻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나 상태를 일으킨 주체가 소유격 대명사 또는 이격 명사로 표시된다. 확실히 이러한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어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sup>25)</sup>

<표 2> 참조

여기서 이 ‘미쉬파트’라는 낱말에 붙은 ‘나의’, ‘당신의’, ‘그의’라는 소유격 대명사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주님의’라는 이격 명사는 ‘당신의’라는 소유대명사 또는 ‘여호와’라는 이격 명사를 번역한 말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예문들 가운데서 모든 번역본이 똑같은 의미로 번역한 곳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쉬파트’가 동사에서 명사로 만들어진 것이지 성질을 표현하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성질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명사로 오해한 과오가 발견되는 것이다.<sup>26)</sup> 시편 36:6은 NIV와 JBE만이 ‘미쉬파트’를 행위명사로서 1) 정의를 실현하는 당신의 행위 또는 2) 당신이 실현하신 정의의 상태라는 뜻으로 *your justice, your saving justice*로 번역했다. 특히 JBE의 *your saving justice*라는 번역은 약자를 구원하는 정의의 행위임을 명확히 나타낸다. ‘당신의 심판/*your judgments/deine Gerichte*’라고 번역한 것은 ‘심판하다/재판하다’의 행위명사로 이해하기는 했으나 그 ‘심판/재판’ 행위가 반드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함의는 들어있지 않다. 시편 48:11은 오직 JBE만이 *your saving justice*로 번역했다. 시편 72:1은 NEB, NRSV, NIV만이 *justice*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재판’ 또는 ‘판단력’ 등등으로 번역했다. 시편 97:8은 『공동』과 『새번역』이 ‘미쉬파트’를 성질명사로 곡해하여 번역했고 나머지는 모두 ‘심판’ 또는 ‘재판’으로 번역했다. 시편 105:7은 『공동』과 『새번역』만이 ‘미쉬파트’의 어원적 의미를 ‘다스림’으로 이해하여 번역했고 나머지는 모두 ‘판단/판결/재판’의 의미로 번역했다. 이사야 26:8은 『새번역』과 NEB와 NIV는 ‘율법/*laws*’로, 나머지는 ‘심판/재판/판결

25) Heb는 히브리어 성서를 가리키며 이 어구에 사용된 ‘미쉬파트’라는 낱말이 단수형으로 사용되었는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지를 ( )속에 (단), (복)으로 표시했다. ‘개개’는 『개역개정판』, ‘새번’은 『새번역』, ‘가성’은 가톨릭 『성경』, NRS는 NRSV, NAS는 NASB이다. 스페이스 관계로 영어, 독일어의 분절이 원칙대로 되지 못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26) NEB가 욕 40:8의 ‘나의 미쉬파트’를 *that I am just*로 번역한 것과 『개역한글판』이 ‘나를 불의하다’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개역개정판』과 가톨릭 『성경』이 ‘나의 공의’라고 옳게 번역했지만 이 ‘공의’를 행위명사로 이해하지 못하고 추상명사로 이해하는 사람은 NEB의 과오에 빠진다. 시 36:6의 번역에서 『공동』이 ‘당신의 공평하심’, 『새번역』이 ‘주님의 공평하심’, 가톨릭 『성경』의 ‘당신의 공평’도 앞에 지적한 NEB의 과오와 동일한 것이다.

/judgment/Gericht'로 번역했다. 시편 26:9는 『공동』과 NEB만이 '법/laws'로 번역했다. 시편 51:4는 '정의'와 유사한 의미로 가장 많이 번역된 구절이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공의'로, 『새번역』은 '의'로, NRSV, NASB, NIV, JBE는 'justice'로 번역했다. 가톨릭 『성경』의 '공정'은 추상명사로 곡해되기 쉽다. 이에 반해서 『공동』은 '법'으로, AV와 AEB는 judgement로, ZB는 Wahrheit로 번역했다. 예레미야 5:4, 5는 거의 모두 '법/law/ordinance/requirement'로 번역했는데 AV와 ZB는 'judgement/Recht'로 번역했고 JBE는 특이하게 'the ruling of their God'로 번역했다. 스바냐 3:5는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이 '공의'로, NASB와 NIV가 'justice'로 번역했고 『새번역』은 『공동』의 '바른 판결'과 독자적인 '공의'를 사용하여 중복 번역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 '미쉬파트'라는 행위명사에 붙은 소유격 대명사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이 어구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번역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어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선행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미쉬파트'가 행위명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소유격 대명사는 행위의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행위의 주체를 가리키는 이격을 '주어적 이격'(genitivus subjectivus)이라 하고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는 이격을 '목적어적 이격'(genitivus objectivus)이라 한다. '나의 구원'이라는 어구에서 '나'는 문맥에 따라서 구원이라는 행위명사의 주체로도 이해될 수 있고 객체로도 이해될 수 있다. 만일 객체라면 '나의 구원'은 '나를 구원하는 사건/행위' 또는 '나에게 베풀어진/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뜻한다. '미쉬파트'라는 행위명사에 접속된 소유격 대명사나 이격 명사가 인간적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목적어적 이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이 소유격 대명사가 이 행위명사의 수혜자인지 징벌 대상인지를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이다.

아래 도표를 보면 위의 도표에서 확인한 것과 이 어구를 모든 번역본들이 꼭 같이 일치된 의미로 번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 <표 3> 참조.

<표 3>에서 맨 먼저 지적해야 할 사항은 '미쉬파트'라는 행위명사를 성질의 추상명사로 곡해해서 번역한 사례이다. 성질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에 접속된 이격은 주어적 이격을 뜻한다. 『개역개정판』과 『공동』이 욕기 27:2의 번역에서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으로, 『공동』이 시편 9:4와 17:2의 번역에서 '나에게 죄없다 판단', '너는 죄없다 판단'으로, 『새번역』이 시편 17:2의 번역에서 '너는 죄없다고 판결'로 번역한 것은 '미쉬파트'를 성질의 추상명사로 곡해했기 때문이다. ZB가 시편 37:6

에서 *deine Gerechtigkeit*로 번역한 것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에스겔 16:38; 23:45; 호세아 6:5; 스바냐 3:15는 ‘미쉬파트’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징벌자를 겨냥하여 내리는 선언이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이 ‘너의 형벌’, ‘네 형벌’로, NRSV와 NASB가 *the(His) judgements against you*로 번역한 것은 의미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NIV의 *your punishment*라는 번역은 문맥상으로 숙고해 보아야만 목적어적 2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새번역』의 ‘징벌’과 『가성』의 ‘너에게 내리신 판결’이 누구에게 내리신 징벌인지, 이 판결이 ‘너’라고 지칭된 대상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NEB와 ZB가 *your adversaries*와 *deine Widersacher*로 번역한 것은 원문을 곡해한 왜곡된 번역이다. 호세아 6:5의 ‘너의 미쉬파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너의’는 목적어적 2격으로 ‘미쉬파트’의 대상이며 이 대상은 ‘미쉬파트’의 수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징벌자를 뜻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모든 의미를 짧은 어구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 AV, NRSV, NASB, NIV가 *thy judgements, your judgements, the judgments on you, your judgment*로 번역한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you*가 *judgment*의 수혜자인지 피징벌자인지 알른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JBE, ZB는 2인칭 소유격 대명사를 1인칭 소유격 대명사로 바꾸어서 ‘내 심판/나의 심판 /*my sentence/mein Recht*’로 각각 번역했다. 이렇게 하여 이 ‘미쉬파트’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명확히 했다. 『공동』과 NEB는 이 구절의 번역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이 어구가 사용된 예문의 거의 모두는 2격 대명사나 명사로 표시된 대상을 이 ‘미쉬파트’의 수혜자로 기술한다. ‘미쉬파트’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지향점에 정위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미쉬파트’라는 용어의 의미는 필수적으로 사회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미쉬파트’의 의미를 세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에게 돌려져야 할 정당한 몫으로서의 ‘권리’를 뜻한다. 둘째는 당사자에게 건네주는 권리 회복, 정당한 처우, 정의 실현, 신원(伸冤) 등등을 뜻한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 문제를 해결과 관련된 정당한 쟁의, 송사, 재판, 민원(民願) 사건, 사연, 사정(事情), 형편 등등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 분류는 색동저고리의 색동처럼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구절이라도 여러 번역본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이하게 이해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이러한 의미 분류는 번역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하나의 관점으로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신명기 21:17은 모든 번역이 ‘권리’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민수기 27:5는 모든 번역이 셋째 의미로 번역했다. 열왕기상 8:19, 59; 역대하 6:35, 39; 예레미야애가 3:59는 번역본의 대다수가 셋째 의미로 번역했지만 주로 NEB와 ZB는 *justice*(정의), *das Recht*(권리)로 각각 번역했다. 시편 17:2; 35:23; 37:6; 140:12; 146:7은 번역본의 다수가 둘째 의미로 번역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하더라도 전체적 의미는 동

일하며 다만 강조점이 다르게 부각될 따름이다. 첫째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이 각자에게 부여할 가치의 목표치이며 둘째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절차이며 셋째 것은 사회 정의 문제가 야기되는 바탕, 출발점, 제도적 틀거지이다.

## 6. ‘하나님의 의’(1): 구약성서에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 행위

‘구원’(救援, salvation)을 뜻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예슈아’(יְשׁוּעָה)인데 이것은 ‘구원하다’(יָשַׁע)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행위명사(nomen actionis)이다. 구약성서에서 ‘야샤아’라는 동사는 184회 사용되었고 ‘예슈아’라는 명사는 78회 사용되었다. ‘예슈아’는 행위명사로서 1) 구원 행위 2) 구원 사건 또는 구원 상태를 뜻한다. 성서가 증언하는 이 구원 행위 또는 구원 사건의 주체는 배타적으로 하나님이다. 이 행위명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 명사에 ‘하나님의’라는 2격 어구를 붙이거나(2회), ‘당신의’(your)/‘그의’(his)/‘나의’(my)라는 소유격 인칭대명사를 붙여서 표시한 것이 각각 14회, 6회, 5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식으로 서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16회이다. 그런데 이 소유격 대명사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구원의 대상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 ‘나의 구원’(my salvation)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행위/사건’을 뜻하는데 이러한 용례가 12회이며 ‘너희의 구원’(your salvation)이 1회, ‘우리의 구원’(our salvation)이 1회, ‘그녀의 구원’(her salavation)이 1회, ‘...를 위한 구원’(salvations for...)이 3회이다.

그런데 주석학적으로 또는 성서 번역상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구약성서에서는 ‘체테크’와 ‘체다카’라는 낱말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 또는 구원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구약성서 전체에서 ‘체테크’는 119회, ‘체다카’는 157회 사용되었다. ‘체테크’는 남성명사이고 ‘체다카’는 여성명사인데 그들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이 두 명사는 206회 사용된 ‘차디크’(צַדִּיק, 의로운/정의로운/옳은/올바른/righteous/just)라는 형용사의 명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추상명사인데 이것은 어떤 인격체의 윤리적 속성을 서술하는 ‘의로움’(righteousness)을 뜻하거나 사회적 관계의 가치를 지칭하는 ‘정의’(justice) 또는 ‘정의로운 것’(what is just)을 뜻한다. 추상명사로 사용된 용례는 지금의 우리의 논의에서 배제된다. 우리의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체테크’/‘체다카’가 행위명사로 사용된 용례이다. 행위명사는 동사에서 명사화 한 것이다. 행위명사로서의 ‘체테크’/‘체다카’의 바탕이 되는 동사는 ‘차다크’(צָדַק)인데 41회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서 자동사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26회이고 15회는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자동사의 기능과 타동사의 기능의 차이를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사의 동작은 행위 주체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는 달린다.”(He runs.)와 “그녀는 미소짓는다.”(She smiles.)

라는 자동사 문장에서 달리는 동작과 미소짓는 동작은 주어인 그와 그녀의 몸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 자동사를 명사(=행위명사)로 만들어서 ‘그의 달리기’(his running/race)와 ‘그녀의 미소’(her smile)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도 ‘달리기’와 ‘미소’는 그와 그녀의 몸에서 분리되어 생긴 어떤 동작이 아니다. 이와 달리 타동사는 행위 주체가 일으키는 동작이 어떤 대상(=목적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작은 주체의 몸에서 분리되어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객체에게 가해지는 행위를 연출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God created the world.)와 “그는 책을 한 권 저술했다.”(He wrote a book.)라는 문장에서 ‘창조하다’와 ‘저술하다’라는 동작은 행위의 주체인 하나님과 그 사람의 몸과 각각 분리되어서 ‘세상’과 ‘책’이라는 대상과 관련해서 실연(實演)되었다. 이 타동사를 행위명사로 변형하여 ‘하나님의 창조’(God’s creation), ‘그의 쓰기’(his writing)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1) 하나님의 창조 행위(God’s act of creating), 그의 글 쓰는 행위(his act of writing)를 뜻하기도 하고 2) 그 행위의 결과물인 창조물(=피조물), 저작품(=저서)을 뜻하기도 한다.

동사의 행위명사로 사용된 ‘체테크’/‘체다카’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다크’라는 동사가 타동사(Piel과 Hiphil)로 사용된 경우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 동사의 의미 이해를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그것은 ‘차다크’(의로운, righteous)이라는 형용사이다. 대다수의 주석가와 번역자는 ‘차다크’라는 동사가 ‘차디크’라는 형용사와 어근(語根)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윤리적 속성을 뜻하는 ‘의로운’이라는 의미와 결합시켜서 규정하려는 과오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이 동사의 의미를 ‘의롭다고 선언하다’(gerecht erklären/sprechen), ‘의롭게 만들다’(gerecht machen)라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에 ‘의롭다’ 또는 ‘의롭게’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목적어로 등장한 사람의 윤리적 속성이 의롭다고 판정하거나 윤리적 속성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마련이다. 이 타동사가 대상자의 윤리적 속성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판정을 내리거나 간섭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방지하는 한 가지 좋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이 타동사를 윤리적 용어가 아니라 법정적 용어(法廷的 用語, forensic term)라고 규정한 것이다.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의 어느 한 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거나 그 반대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다. 어느 한 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그 당사자의 윤리적 속성에 대하여 옳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휘말려 있는 소송 사건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즉 억울하게,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윤리적 용어와 법정적 용어의 차이를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적 용어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건강진단서를 발부해 주거나 이상(異狀)이 있는 건강 상태를 치유하여 정상 상태로 변화시켜 준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진행되는 이러한 일은 의사와

환자 두 사람 관계에서만 일어난다. 이와 달리 재판관이 법정에서 행하는 판결 행위는 한 편으로 재판관과 다른 한 편으로 소송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소송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 소송 사건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 양자 사이에서 얽힌 싸움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중립적인 공정한 입장에서 이 양자 사이에 개입하여 시비(是非)를 가려서 판결을 선고하는 법적 행위이다. 공정한 재판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에게 부당하게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에게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 그러므로 법정적 판결 행위는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을 불의한 권리 침해로부터 구출하는 구원 행위이다. 그렇지만 이 법정적 판결 행위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 사건은 반드시 법정적 판결 사건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억울하게 당하는 약자의 편을 들 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역사 현장에서 억울한 약자의 편을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적 용어로 사용된 ‘차다크’라는 동사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표 4> 참조.

<표 4>의 예문들 가운데서 마지막 세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들은 직접적으로 소송 사건의 판결 문제를 언급하거나 어떤 일을 간접적으로 소송 사건에 유비해서 진술한 것이다.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법정적 용어라 한다. 그런데 번역어로 자주 사용된 ‘의롭다 하다’, ‘의롭게 하다’, ‘의’ ‘의로운’, ‘공의’, ‘악인’, ‘의인’, ‘justify’, ‘acquit’, ‘righteousness’ ‘gerecht’ 등등의 낱말은 법정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차다크’(주로 Hiphil형으로 사용되고 Piel형으로 몇 번 사용됨)는 법정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의롭다 하다’, ‘의롭게 하다’, ‘justify’, ‘gerecht sprechen/machen’ 따위의 비법정적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 윤리적 속성에 대하여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거나 그의 윤리적 속성을 의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뜻한다고 곡해하기 쉽다. ‘의롭다 하다’, ‘justify’, ‘acquit’ 등등의 낱말보다도 ‘무죄를 선고하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다’, ‘권리를 찾아주다’, ‘to vindicate’, ‘to do one justice’, ‘jemandem das Recht zu geben’ 등등의 낱말이 법정의 판결 내용을 더 잘 표현할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출애굽기 23:7; 신명기 25:1; 열왕기상 8:32//역대하 6:23; 잠언 17:15는 부정한 재판을 규탄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교훈이다. 여기에는 재판에 대한 배타적인 특수한 성서적 내용은 없다. 여기에는 소송 당사자들을 의인과 악인 또는 죄 없는 사람과 죄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의인 또는 죄 없는 사람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악인 또는 죄 있는 사람을 단죄하여 처벌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성서의 특수한 가르침이 아니라 보편타당

한 일반적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시편 82:3-4에는 성서가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수한 가르침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 고아,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들은 악인으로 지칭된 사람들과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엄정한 심사에 의거하여 이들의 죄 유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본래적 삶의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며 그 때문에 사회적 강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권리를 회복해 준다는 것은, 4절에 명백히 표현했듯이, 이들을 구해 주는 일, 이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차다크’라는 동사를 수행하는 행위는 곧 구원을 행하는 행위인 셈이다. 그러면 성서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재판관의 자격으로 소송 사건의 판결 절차를 통하여 그들을 옹호하라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은 오직 소송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만 옹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심에 방치해 두어도 되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표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구원함으로써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는 일은 사회 윤리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 판재를 법정적인 판결 행위에 빚대어서 제시한 것은 이 일의 성격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려 함이지 이 과업이 오직 재판관의 판결 행위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사실을 주장하려 함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윤리성 문제나 약자로 전락한 책임의 소재 문제 따위는 관심의 맨 끝자락에 놓여 있을 따름이다.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수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으뜸되는 가장 엄숙한 사명이다. 성서의 가르침도 이리하다.

이사야 50:8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재판 행위에 빚대어서 명확하게 진술한다. 여기서 ‘우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사회적 강자 또는 다수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비유하자면 이들은 소송 사건에 피의자로 고발을 당한 신세와 같다. ‘우리’가 이러한 불리한 약조건하에 처해 있지마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편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다고 예언자 이사야는 고백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우리를 지지/옹호해 주신다’는 뜻이며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칭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가장 단적으로 예시해 준다.

이사야 53:11과 다니엘 12:3에는 ‘차다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지만 법정적인 소송 사건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시편 82:3-4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법정적인 판결 행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권리를 회복해 주는 일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통찰을 이 두 구절에 적용한다면 이들이 수행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 행위,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다크’라는 타동사가 명사화 된 것은 행위명사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격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이 이 행위명사에 연결된 것을 주어적 2격(*gen. subjectivus*) 또는 작자적 2격(*gen. auctoris*)이라 한다. 행위명사는 행위를 지칭하기도 하고 행위의 결과물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행위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행위명사에 연결된 2격 명사 또는 대명사의 소유격은 작자적 2격이라 한다. ‘체데크’/‘체다카’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2격 명사가 연결되거나 대명사의 소유격이 연결된 어구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도, 전승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용례를 다행스럽게도 드보라의 노래의 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사사기 5장에 실려 있는데 11절 상반에 ‘치드코트 야웨’(חַדְקוֹת יְהוָה)라는 어구가 나온다. ‘치드코트’는 ‘체다카’라는 행위명사의 복수형이고 ‘야웨’는 2격 명사이니까 이 두 낱말을 합치면 ‘야웨의 치드코트’이다, 우리말 개역성경식으로 ‘야웨’를 ‘여호와’로 발음한다면 ‘여호와의 치드코트’이다. ‘야웨’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 사용을 피해서 뜻으로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치드코트’ 또는 ‘주님의 치드코트’이다. 드보라의 노래는 여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움을 칭송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체다카’라는 명사는 ‘차다크’(=의로운)라는 형용사가 명사화 된 추상명사(‘의로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으키신 구원 사건, 그들에게 베푸신 도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성을 뜻하는 추상명사는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없다. 여기에 사용된 ‘체다카’는 행위명사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 행위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으키신 구원 사건을 뜻한다. ‘살인’이라는 행위명사는 주체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살인 행위로 드러나고, 일어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살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체다카’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 할 수도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성서 번역본은 이것을 행위명사로 옮겨 이해하고 적절하게 그러한 뜻을 살려서 번역했다.<sup>27)</sup>

-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개역)
-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개역개정)
- ‘야웨의 승리’(공동)
- ‘주님의 의로운 업적’(새번역, 성경)
- ‘耶和華公義的作爲’(한문 성경)
- ‘主の 救い’(일본어 성서)

27) GNB는 Good News Bible, EIN은 Einheitsübersetzung(=독일어 공동번역 성서), LXX은 70인역 그리스어 성서이다.

-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AV, NIV)
- ‘he victories of the Lord’(NEB)
- ‘the Lord's victories’(GNB)
- ‘the triumphs of the Lord’(NRSV, Living Bible)
- ‘the righteous deeds of the Lord’(NASB)
- ‘die Heilstaten des Herrn’(ZB)
- ‘die rettende Taten des Herrn’(EIN)
- ‘δικαιοσυνας’(=δικαιοσυνη의 복수형)(LXX)

이상의 모든 번역본들이 ‘체다카’를 행위명사로 이해하고 그러한 뜻으로 번역했지 성질을 표현하는 추상명사로 번역하지 아니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유일한 예외는 ‘ie Gerechtigkeit des Herrn’으로 번역한 루터 성서인데 Gerechtigkeit는 추상명사로 꼭해하도록 오도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체다카’라는 어구를 행위명사로 올바르게 번역한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사무엘상 12: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사무엘이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은 연설의 한 토막이다.

- “צְדָקוֹת יְהוָה”(=‘야웨의 치드코트[‘체다카’의 복수형]’(히브리어 성서)
-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개역)
-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개역개정)
- “내가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해주신 고마운 일을 낱낱이 들어 야훼 앞에서 너희와 따질 일이 있다.”(공동)
-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새번역)
-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의로운 업적을 모두 들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시비를 가려야겠소.”(성경)
- “一切公義的事”(한문성경)
- “救いの 禦業”(일본어성서)
- “I may reason with you before the Lord of all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which he did to you and to your fathers.”(AV)
- “and 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 will put the case against you and recite all the victories which he has won for you and for your fathers.”(NEB)
- “so that I may enter into judgment with you before the Lord, and I will declare to you all the saving deeds of the Lord that he performed for you and for your fathers.”(NRSV)

“that I may plead with you before the Lord concerning all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which He did for you and your fathers.”(NASB)

“because I am going to confront you with evidence before the Lord as to all the righteous acts performed by the Lord for you and your fathers.”(NIV)

“while I plead with you before Yahweh and remind you of all the saving acts which he has done for you and your fathers.”(JBE)

“as I remind you of all the good things he has done for you and your fathers.”(LB)

“I will accuse you before the Lord by reminding you of all the mighty actions the Lord did to save you and your fathers.”(GNB)

“dass ich mit euch rechte vor dem Herrn und euch vorhalte alle Wohltaten des Herrn, die er euch und euren Vätern erwiesen hat.”(ZB, EIN)

“dass ich mit euch rechte vor dem Herrn wegen aller Wohltaten des Herrn , die er an euch und euren Vätern getan hat.”(Luther)

“την πασαν δικαιοσυνην κυριου”(LXX)

위의 모든 번역본들 가운데서 70인역 그리스어 성서만 예외로 하고 모두 ‘치르크트’를 행위명사로 옳게 번역했다. 놀라운 것은 루터 번역본도 여기서는 Wohltaten (선행들)이라는 행위명사로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여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이라는 형용사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했을 것이다. 행위명사로 번역하되 NRSV, JBE, GNB, 일본어 성서는 각각 과감하게 ‘의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이는 대신에 ‘all the saving deeds’, Living Bible, ‘all the saving acts’, ‘all the mighty actions’, ‘救いの 禦業’으로 번역했고, 『공동』, NEB, GNB는 ‘고마운 일’, ‘all the victories’, ‘all the mighty actions’로 번역했고, 독일어 번역본인 ZB, EIN, Luther 성서는 똑 같이 ‘alle Wohltaten’으로 번역했다. 나머지는 모두 ‘의로운’, ‘공의로운’, ‘righteous’라는 형용사를 덧붙였다. 이것은 아마도 ‘치르크트’라는 낱말의 어간에 들어 있는 ‘차디크’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과감하게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가 6:5의 여호와의 ‘체다카’(복수형)도 명백하게 행위명사이다. 『개역』은 ‘나 여호와와의 의롭게 행한 것’, 『개역개정』은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 『새번역』은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행한 일’, ‘주님의 구원 업적’, NEB는 ‘triumph of the Lord’, NRSV는 ‘the saving acts of the Lord’, NASB와 NIV는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ZB는 ‘die Wohltaten des Herrn’, EIN은 ‘die rettenden Taten des Herrn’으로 각각 번역했다. 『공동』은 추상명사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야웨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라는 오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시편 103:6의 ‘체다카’(복수형)도 확실히 행위명사이다. 그것은 ‘행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행함의 결과로 생긴 결과물이다(He built a house.라는 문장에서 a house는 ‘짓다’의 동사의 결과로 생긴 결과물이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데도다.”(개역)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도다.”(개역개정)

“야훼께서는 정의를 펴시고 모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공동)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새번역)

“주님께서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성경)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 『개역』과 『개역개정』이 이 ‘체다카’를 행위명사로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후대에 나온 나머지 세 번역본의 번역은 오히려 후퇴했다. 그러나 이 셋은 두 번째 동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개역』과 『개역개정』의 단점을 과감하게 극복했다. 영역본 성경 가운데서는 오직 NASB만이 행위명사(righteous deeds)로 번역했으며 독일어 번역본 가운데서는 ZB와 EIN만이 행위명사(Taten des Heils)로 번역했다.

시편 11:7의 ‘체다카’(복수형)도 행위명사로 번역해야 한다. 놀랍게도 우리말 성경의 다섯 종류 모두가 이것을 행위명사(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들)로 번역했다. 영역본 가운데서는 NEB(just dealing), NRSV(righteous deeds), GNB(good deeds)가 행위명사로 번역했으며 유감스럽게도 NASB는 여기서는 추상명사로 번역했다. 독일어 성경 가운데서는 오직 EIN만이 행위명사(gerechte Taten)로 번역했고 유감스럽게도 ZB가 여기서는 추상명사(Gerechtigkeit)로 번역했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하나님의 체다카/체데크’라는 어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어구가 병행대구(parallelismus membrorum)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병행대구는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진술하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다카/체데크’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46:13

“나의 체다카(צדקתי) - 나의 구원(תשועתי)”(히브리어 성서)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개역)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개역개정)

“나는 내 의로움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구원은 지체치 않는다.”(성경)

“我的公義 - 我的救恩”(한문성경)

“わたしの 恵みの 業 - 救い”(일본어성서)

“my righteousness - my salvation”(AV, NASB, NIV)

“my victory - my deliverance”(NEB)

“my deliverance - my salvation”(NRSV)

“my deliverance - to save you”(Living Bible)

“my justice - my salvation”(JBE)

“mein Heil - meine Rettung”(ZB)

“das Heil - meine Hilfe”(EIN)

“meine Gerechtigkeit - mein Heil”(Luther)

사 51:8 // 51:6

“나의 체다카(תְּדַכָּא) - 나의 구원(יְשׁוּעָא)”(히브리어성서)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개역, 새번역)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개역개정)

“내가 세울 정의는 영원히 있고 내가 베풀 구원은 대대에 미친다.”(공동)

“나의 의로움은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대대에 미치리라.”(성경)

“我的公義 - 我的救恩”(한문성경)

“わたしの 恵みの 業 - わたしの 救い”(일본어성서)

“my righteousness - my salvation”(AV, NASB, NIV)

“my saving power - my deliverance”(NEB)

“my deliverance - my salvation”(NRSV)

“my saving justice - my salvation”(JBE)

“the deliverance - my victory”(GNB)

“mein Heil - meine Rettung”(ZB)

“das Gerechtigkeit - meine hilfreiche Gnade”(EIN)

“meine Gerechtigkeit - mein Heil”(Luther)

사 51:5

“나의 체데크(צְדָקָה) - 나의 구원(יְשׁוּעָה)”(히브리어성서)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개역)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개역개정)

“내가 세울 정의가 훗연히 닥쳐오고 내가 베풀 구원이 빛처럼 쏟아져 오리라.”(공동)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새번

역)

“내가 재빠르게 나의 정의를 가까이 가져오리니 나의 구원이 나아가고”

(성경)

“我的公義 - 我的救恩”(한문성경)

“わたしの 正義 - わたしの 救い”(일본어성서)

“my righteousness - my salvation”(AV, NASB, NIV)

“my victory - my deliverance”(NEB)

“my deliverance - my salvation”(NRSV)

“my justice - my salvation”(JBE)

“mein Heil - meine Rettung”(ZB)

“meine Gerechtigkeit - die Hilfe”(EIN)

“meine Gerechtigkeit - mein Heil”(Luther)

위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바빌론 유수 기간이 끝날 무렵에 제2 이사야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 병행대구의 형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체다카/체데크가 가까이 이르렀다 - 하나님의 구원이 쉬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동의어적 병행대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체다카/체데크를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그러므로 ‘구원’이 행위명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용된 ‘체다카/체데크’도 행위명사임에 틀림없다. NRSV, Living Bible, GNB, ZB, EIN이 ‘체다카/체데크’를 deliverance와 Heil이라는 행위명사로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의미의 정곡을 찌른 적절한 번역이다. 일본어성서는 ‘恵みの業’이라는 행위명사로 적절하게 번역하면서도 일관성 없이 51:5의 번역에서는 ‘正義’라는 추상명사로 번역했다. NEB와 JBE는 saving power, saving justice, victory 등을 사용함으로써 행위명사의 냄새가 풍기도록 노력했다. 우리말 성경은 모두 ‘의’, ‘공의’, ‘정의’, ‘의로움’이라는 추상명사로 번역했으며 영역 성서 가운데서는 AV, NASB, NIV가 ‘righteousness’라는 추상명사로, 독일어 성서 가운데서는 루터 성서가 ‘Gerechtigkeit’라는 추상명사로 번역했다.

시편 71:15; 119:123; 사 45:8; 59:16; 61:10; 63:1에도 ‘체다카’/‘체데크’와 ‘구원’이라는 낱말이 한 자리에 나란히 언급된다. 시편 31:1; 36:10; 35:24, 27, 28; 51:14; 71:16, 19, 24; 72:1, 2, 3; 89:16; 111:3; 112:9; 143:11; 145:7; 미가 7:9의 ‘체다카’/‘체데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언급하는 문맥 속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곳에 사용된 ‘체다카’/‘체데크’는 추상명사로 이해하기보다 행위명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시편 35:27, 28에는 ‘나의 체데크’와 ‘당신의 체데크’라는 어구가 나온다. ‘당신의 체데크’는 ‘하나님의 체데크’를 가리키고 ‘나의 체데크’는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의 체데크’를 가리킨다. 이 두 곳의 ‘체데크’는 둘 다 행위명사로 이해해야 뜻이 통한다. 28절의 ‘체데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행하신 구원 사건 또는

구원 행위를 뜻하며 27절의 ‘체데크’는 사람에게 일어난/행해진 구원 사건 또는 구원 행위를 뜻한다. 28절의 단수 2인칭대명사의 소유격 ‘당신의’는 작자적 2격(gen. auctoris)으로서 구원 사건이나 구원 행위를 일으키거나 행한 장본인을 가리키며 27절의 단수 1인칭대명사의 소유격 ‘나의’는 목적격 2격(gen. objectivus)으로서 그에게(to him) 또는 그를 위해서(for him) 구원사건이나 구원 행위가 일어나거나 행해진 대상을 가리킨다. 이 어구의 번역을 『새번역』은 ‘내가 받은 무죄 판결’, NRSV와 NASB와 NIV는 ‘my vindication’, NEB는 ‘...see me righted’로 번역하여 행위명사로서의 의미를 풍기게 했다. 나머지 번역본들은 모두 추상명사로 이해하여 번역했는데 그것은 문맥에 부합되지 않는다.

## 7. ‘하나님의 의’(2): 신약성서에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신약성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며 바탕이다. 바울은 이 구원 사건을 일컬어 ‘하나님의 의’(δικαιοσύνη Θεου)라 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롬 3:21-22) 이 구원사건은 구약성서의 메시지와 아무 관계없는 전혀 독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성서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장차 종말에 일어나리라고 증언한 바로 그 구원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사건은 구약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점과 완결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지칭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δικαιοσύνη Θεου)라는 어구는 구약성서의 ‘치데코트 야웨’(=여호와와의 체다카[복수형]) 또는 ‘여호와와의 체데크’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LXX에 이미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바울은 LXX으로부터 이 표현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했다. 바울의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사건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증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인간의 현실적 사회관계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건은 πανερω(=드러내다/나타내다)라는 동사의 완료형 수동태(πεφανερωται)로 표현되었다. 완료형 시제는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표현한다. 여기서 수동태 문장의 행위의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맥상으로 하나님이 그 주체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명사적 어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와 ‘모든 믿는 사람에게’라는 두 수식적

어구만 나오고 동사는 없다. 여기에 동사가 생략되지 않았다고 보면 두 수식적 어구는 ‘하나님의 의’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 셈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뜻하게 된다. 그렇다면 22절에 언급한 이 ‘하나님의 의’는 21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의 동격어구로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진술한 셈이 된다. 『개역』, 『개역개정』, 『일본어 신공동역』, AV, NEB, NRSV, NASB, NAB, JB, JBE, Luther, ZB, Vulgata는 22절의 두 전치사구(adverbial phrases)를 ‘하나님의 의’에 직결된 형용사구로 해석하여 22절의 ‘하나님의 의’를 21절의 ‘하나님의 의’의 동격어구로 번역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22절에 어떤 동사적 술어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모순을 일으킨다. 21절의 ‘하나님의 의’는 이미 일어난(πεφανερωται) 사건이다. 이와 달리 22절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δια πιστ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한(εις παντας τους πιστευοντας) 것이다. 그러니까 22절의 ‘하나님의 의’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구원사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자리에 그때그때 구현되는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그때그때 부여되는 것이다. 21절의 ‘하나님의 의’는 나사렛 예수라는 특정한 역사적 존재 안에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건이고 22절의 ‘하나님의 의’는 21절의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수궁하고 수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수여되는 하나님의 구원 또는 구원행위이다. 22절에 어떤 동사적 술어가 생략되었다고 상정하고 그것을 보충하여 번역한 번역본은 『구역』, 『공동』, 『새번역』, 『한문 성경』, 『개역판 일본어 성서』, NIV, GNB, EIN, 『히브리어 신약성서』이다. 이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라고 번역한 『새번역』처럼 두 형용사구 앞에 각각 동사를 보충하여 번역한 번역본은 『공동』, 『한문성경』, 『개역판 일본어 성서』, GNB이며 첫 번째 전치사구를 형용사구로 처리하고 두 번째 전치사구를 부사구로 취급하여 그 앞에 동사를 보충하여 번역한 번역본은 NIV, Ein, 『히브리어 신약성서』이며, 두 전치사구를 하나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취급하여 번역한 번역본은 『구역』이다. 21절의 ‘하나님의 의’와 22절의 ‘하나님의 의’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가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사건으로 단번에(onece for all/ein für allemal) 일어난 근본적(fundamental) 구원사건이라면 후자는 이 근본적 구원사건이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실현되는 현실적(actual) 구원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 둘을 절대적으로 동일시하면, 다음과 같은 신학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21절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구원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서술된 그러한 구원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을 진술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그리스도교의 근본적 성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21절의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은행에 예치해 둔 원금에 비한다면 22절의 하나님의 구원사건은 은행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그때그때 배분되는 이자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1절과 22절의 δικαιοσυνη를 행위명사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 ‘의로움’, ‘righteousness’, ‘justice’, ‘Gerechtigkeit’라는 추상명사로 번역해 놓으면 δικαιοσυνη Θεου라는 어구는 하나님이 행하신/행하시는 구원행위 또는 구원사건을 뜻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로운 원칙을 뜻한다는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바울이 말하는 δικαιοσυνη Θεου는 히브리어 성서의 ‘여호와와의 체다카/체데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δικαιοσυνη가 추상명사가 아니라 행위명사의 의미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NEB는 ‘God’s way of righting wrong’으로, GNB는 ‘God’s way of putting people right with himself’로, JBE는 ‘God’s saving justice’로, 『공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길’로 번역했다. 이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번역상의 공적이다. 특히 NEB의 ‘righting wrong’과 JBE의 ‘saving justice’라는 번역은 ‘왜곡된/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구원하는 정의의 실현’을 뜻한다고 볼 때에 그 둘은 하나님의 구원행위 또는 구원사건을 잘 표현한다. 『공동』과 『GNB』의 번역은 행위명사의 의미는 살렸지만 ‘하나님과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윤리적 품성을 바로잡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서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나 구원행위라는 의미를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한다.

바울은 로마서 1:3에서 복음을 정의(定義)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 하고 16절에서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정의하기를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 17절에서 바울은 3절과 16절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δικαιοσυνη Θεου라는 어구로 대치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증언하는 소식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사건 또는 구원행위를 표현하는 어구이다. ‘나타납니다’라는 동사는 ‘계시하다/드러내다/나타내다’(αποκαλυπτω)의 3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αποκαλυπτεται)이다. 3:21에서 현재완료 수동태형이 사용된 것과 달리 여기서 현재 수동태형이 사용된 것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그때그때 실현되는 하나님의 의를 뜻하기 때문이다. 1:17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종말적인 구원사건의 효능이 수혜자에게 그때그때 실현되는 현실적 구원사건을 가리킨다. ‘믿음에서 믿음으로’(εκ πιστες εις πιστιν)라는 부사구는 17상반절에 연결된 부사구이지 『새번역』의 번역문처럼 17절의 하라는 독립된 문장에 속한 부사가 아니다. 이 부사구의 번역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철두철미/전적으로/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히브리 성서와 LXX의 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지칭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그의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그의 선교활동의 주된 과제의 하나였다.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 논증을 일컬어 개신교 신학에서는 바울의 ‘칭의론’(稱義論) 또는 ‘의인론’(義認論)이라 부르고 가톨릭 신학에서는 ‘성의론’(成義論)이라 부른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칭의론은 바울의 신학사상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교 복음의 정수(精髓)라고 하는 데 동의하며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는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칭의론이 “교회의 존망이 달려 있는 신앙 조항”(articulus stantis et cadentis ecclesiae/the article of the standing and falling of the church)으로 받아들여진다. 신학에서 칭의론이 이렇듯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과 교회가 바울이 진술한 본래 그대로의 의미대로 올바르게 그것을 이해·해석·적용해 왔는지 엄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하는 첫 걸음은 δικαιουνη라는 명사를 어떤 윤리적 상태를 뜻하는 추상명사로 오해하는 데 있다. 만일 추상명사라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하고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면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 바울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질이 죄인인 인간의 것으로 섰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전가설(轉嫁說)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질이 죄인인 인간 안에 주입되는 것을 뜻한다는 주입설(注入說)이 서로 대립한다. 개신교의 칭의론/의인론은 전가설을 지지하며 가톨릭교회의 성의론은 주입설을 지지한다. 전가설은 칭의론에서 인간의 것으로 간주된 의는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 iustitia imputata)에 불과하다고 보며 주입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질이 죄인인 인간에 주입되어서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두 이론 사이의 논쟁은 오늘날까지 수 백 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어느 쪽이 옳으나 그르나를 판가름 할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의’라는 명사를 추상명사로 곡해한 데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를 추상명사로 곡해하면 바울이 칭의론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 개인이 어떻게 의로운 존재로 판정받을 것이냐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마치 의사가 병자 개인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주거나 병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듯이 칭의론이 말하는 구원론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개인 사이에 ‘의로움’이라는 윤리적 품목이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칭의론에 대한 이와 유사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의 하나는 칭의론을 속죄론으로 곡해하는 것이다. 속죄라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는 대가로 죄를 면하는 것이다. 만일 칭의론이 속죄론이라면 어느 죄인에게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목욕료를 대신 지불해 주고 그 죄인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죄’라는 때를 씻

어내어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규명하겠지만 죄인이나 죄라는 명사가 바울의 칭의론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법정에서 어느 소송 당사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때에 사용되는 표현인 ‘아무개를 의롭다고 선고하다’를 어구는 ‘아무개의/에게 무죄를 선고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무죄 선고라는 것은 그 피고의 죄를 면해 주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 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옳다는 것을 뜻할 따름이다. 속죄론은 죄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가르침이다. 죄인은 죄를 범한 장본인이고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범하는 죄는 그 죄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만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 성 폭행이라는 죄를 범했다면 그 남자는 성 폭행이라는 죄를 범한 죄인이고 그 여자는 성폭행 죄의 희생자이다. 이 경우에 속죄론은 어떻게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를 은혜롭게 다루어주지만 죄의 희생자인 피해자의 구원 문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최근에 Andrew S. Park이라는 재미한 국인 신학자가 칭의론의 맹점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그렇지만 그의 비판은 바울의 본래적 칭의론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잘못 이해된 칭의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칭의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범죄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로, 이 교의(敎義)는 칭의 문제를 범죄자의 입장에서만 본다. 둘째로, 이 교의는 피해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셋째로, 이 교의는 오로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따름이지 인간이 그 이웃과 더불어 맺는 관계를 감소시킨다...기독교(적어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이 교의는 범죄자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 지는 기술하지마는 피해를 당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생략한다.<sup>28)</sup>

칭의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죄인들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상한 마음을 무시함으로써 죄의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종교생활의 일차적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교의적 의사일정(議事日程)내에서는 해를 입은 사람을 정당화시켜 주는 작업은 제쳐놓아졌다. 죄인들이 그들 자신의 죄,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일로 분주하다. 그들에게 해를 입은 희생자들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교리가 죄의 희생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것이다.<sup>29)</sup>

28) Andrew Sung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95.

몇 년 전에 장안에 화제거리가 된 “밀양”(密陽)이라는 영화도 기독교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칭의론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본래적인 바울의 칭의론은 사회적 불의의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차적 초점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사건 또는 구원행위가 의사와 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유 활동처럼 단선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회관계에서 어느 인간 집단과 다른 어느 인간 집단 사이에 발생한 부당한 억압, 착취, 소외, 빈부 등등의 문제로 발생한 갈등과 분쟁에 재판관이 개입하여 억울하게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약자들을 편들어서 승소판결을 내려줌으로써 부당한 것을 바로잡듯이 신구약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나 구원행위는 사회관계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들을 편들어서 구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정을 바울은 이사야 50:7-9에 기대어서 로마서 8:31-34에서 명백하게 진술한다.

31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사야의 구절과 로마서의 구절 사이의 표현상의 차이점은 1인칭 단수 대명사 ‘나’가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뿐이고 내용상의 차이점은 없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은 거의 같다. 이 두 곳의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1:1로 서 있는 단독자가 절대로 아니다. 이 두 곳의 ‘나’와 ‘우리’는 적대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우리 편이다’, ‘우리를 대적하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갈등이나 분쟁 관계가 개재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고발하다’, ‘정죄하다’는 표현은 법정적인 소송사건의 성격을 띤 사안이 문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사건 또는 구원행위이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이른바 칭의론을 ‘의롭다 하다’(δικαιωω)라는 타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33절)이다. 로마서 8:31-34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칭의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 우리들을 편들어서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우리의 적대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구원행위를 뜻한다. 35절에 언급된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은

29) Ibid. 97.

하나님의 구원사건이 일어나야 할 구체적인 환경이며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것을 도외시하는 구원론은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영지주의적 구원관 또는 그리스 철학적 영육 이원론의 구원관일 따름이다.

바울은 그의 칭의론을 개진하는 데 구약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함을 받은 사례를 인용한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칭의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사례를 끌어대었다. 갈라디아서 3:6-9에서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의 적대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배타주의적 사고를 분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의 의미를 끌어대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7절)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9절)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믿음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받는 대열에 합류한다는 사실을 ‘의롭다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진술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8절) 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의 칭의론이 목표하는 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평등한 자격을 옹호하는 것이다. 로마서 4:9-12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사례로 제시한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바울은 이것을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칭의론을 개진했다.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11절) 바울은 로마서 3:21-28까지 그의 칭의론을 길게 개진한 다음에 29절에서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라고 자문자답한다. 이것은 바울의 칭의론이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사건에서 유대사람과 이방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임을 말해준다.<sup>30)</sup>

30) 바울이 칭의론을 개진하는 신학적 상황에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문

바울의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된 ‘의롭다 하다/의롭게 하다’로 번역된 ‘δικαιω’라는 동사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차다크’라는 동사의 번역어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윤리성을 판정하거나 윤리적으로 의로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법정적 용어로서 소송 사건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소송 당사자의 옳음을 판정하여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를 편들어서 신원해 주는 것, 그의 무죄를 선고하는 것 등등을 뜻한다.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동태로 표현된 칭의론 대신에 능동태로 표현된 칭의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갈 2:15)는 말은 수동태로 표현된 칭의론을 대표한다. 이 수동태 칭의론의 문제점은 1) 칭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은 점, 2) 칭의 행위의 대상자를 ‘사람’이라는 무차별적 일반 명사로 지칭되었다는 점, 3)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δια πιστ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라는 부사구가 칭의 사건을 야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분하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능동태로 표현된 칭의론은 1) 반드시 하나님이 칭의 행위의 주체로 명시되었으며 2) 반드시 칭의 행위의 대상자를 특정화시켜 지칭했으며 3) 수동태 문장에서 그 의미를 두고 논란이 되는 그 부사구가 반드시 결부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롬 3:2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롬 3:30)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롬 4:5)

“하나님께서서는 ...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롬 8:30)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롬 8:33)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갈 3:8)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특정적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우리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분류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주장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구약성서에서

---

제 거리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Krister Stendahl의 통찰은 옳다.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Fortress Press: Philadelphia, 1976), 26, 27.

‘악인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낱말이다. 이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막 2:17)는 예수의 선언과 같은 궤도에 놓여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주장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림돌이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과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별칭이다.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멸시 받는 사람들, 이단으로 비방 당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칭의론의 대상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은 사회적인 무풍지대에서 살고 있는 인간 일반이 아니라 사회적 대립관계에서 멸시, 비방, 소외, 차별, 억압, 박해 따위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갈라디아서 3:28은 바울이 2:15에서부터 칭의론을 기본 축으로 하여 논증한 그의 구원론의 최종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복잡한 법리적 논쟁을 끝낸 후에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 선고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사이의 인종 차별, 종과 자유인 사이의 신분 차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 차별의 철폐는 칭의론에 입각하여 전개한 바울의 구원론이 지향하는 목표점이었다. 왜 구원론은 이러한 차별의 철폐를 겨냥하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차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의 철폐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 되는 셈이다. 인간 사회에는 이러한 세 종류의 차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경제적 차별,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정치적 차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의 문화적 차별, 이 밖에도 이념적 차별, 종교적 차별, 사상적 차별 등등 무수한 차별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구원사건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에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막론하고 일체의 차별을 철폐되어야 할 불의이며 그것은 철폐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 성서가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이나는 물음을 소극적 표현으로 답하자면 “용납될 수 없는 온갖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 철폐 건너편에 놓여 있는 현상이 적극적인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δικαιοσύνη Θεου’라는 어구에 사용된 δικαιοσύνη는 δικαιοω라는 타동사에서 명사로 만들어진 행위명사이다. δικαιοσύνη가 행위명사이지 δικαιοσ라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만들어진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δικαιοσ(롬 4:25; 5:18)라는 명백한 행위명사를 사용하거나 δικαιομα(롬 5:18; 계 15:4; 19:8)라는 명백한 행위명사를 사용했다라면 오해의 발생을 많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LXX에 확정된 표현법을 따라야만 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 8. 맺음말

하버드 대학의 샌델(M. J. Sande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의 번역본이 출판되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분야의 베스트 셀러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연속해 진행해 오면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동원한 강좌의 내용을 정리·수록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가릴 것 없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놓고 그렇게도 많은 수강생과 독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대의 사회에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이 권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침해당한다. 강자들이 자기네의 삶의 권리를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약자들의 권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상생을 목표로 하는 공존공생의 삶의 원리보다는 정복을 목표로 하는 약육강식의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삶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약자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경우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 정의(social justice)란 무엇인가?”이며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일 것이다.

‘사회 정의’라는 용어가 사회 윤리학에서 전문 용어로 만들어져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1840년대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개념도 분배 문제를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신구약 성서에는 사회 정의라는 용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말 번역성서에는 정의라는 낱말이 극히 희소하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 자체에 정의 또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희소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히브리어 ‘미쉬파트’, ‘체다카’, ‘체데크’, 그리스어 ‘디카이오쉬네’ 등등의 낱말은 수많은 경우에 그 본래적 의미대로 올바르게 이해하면 바로 사회 정의를 뜻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는 사회 정의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定義)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거나 사회 정의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표를 작성해 내지 않았다. 성서의 중심 주제는 정의가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구원사(救援史)가 성서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성서에서 정의는 바로 이 구원사와의 연관 속에서 논의된다. 그러므로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알아야 하고 구원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성서가 증언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오염된 한강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낚아다가 천상에 있는 어떤 깨끗한 연못에 옮겨다 놓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개개인의 사후에 그의 영혼을 육신에서 분리해서 천상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

켜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성서에는 그러한 구원 개념은 생소할 따름이다.) 성서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는 해방 사건, 유대 백성을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의 강한 민족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사건, 이스라엘 사회내에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등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활동, 종말적으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등등이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집중한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며 수혜자이다. 인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원의 상태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불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상실된 구원을 회복할 수 있다.

성서는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적시하는 대신에 사회 정의의 실현 대상자들을 곳곳에 반복해서 제시한다. 그들은 “낮은 사람, 슬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시 5:11, 15), “가련한 사람, 억눌림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 폭력에 쓰러지는 가련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 고아”(시 10:8, 10, 14, 18),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압을 받는 사람, 장애자”(시 35:10, 16), “불쌍한 백성, 가난한 백성,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시 72:4, 12-14), “가난한 사람, 고아,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빈궁한 사람”(시 82:3-4),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시 113:7, 9), “고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시 140:12),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외국인,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렘 22:3, 16), “착취당하는 백성”(겔 45:9), “가난한 사람”(암 5:1-12),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슥 7:10)이다. 이들은 한 마디로 묶으면 사회적 약자들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집단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대표이며 사회적 불의의 대표적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성서는 사회적 구원을 증언하기 때문에 성서의 구원과 사회 정의의 실현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사회 정의의 실현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편향적으로 약자들의 편을 드신다. 왜냐하면 약자들이 당하는 사회적 불의는 당신이 이루시는 구원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 차별, 소외, 억압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올바른 사회에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최악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성서의 주장을 두고 그들이 그러한 특혜를 받을 윤리적 또는 인격적 자격이 그들에게 갖추어졌기 때문인지 그것과 무관한지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 착취, 불평등, 부자유 따위의 사회적 악은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 된다.

1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2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4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5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6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오히려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신 9:1-6)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정을 사회 정의 문제에 적용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편들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올바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는 사회 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린다. 성서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사람은 사회 정의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성서는 우리에게 가난을 퇴치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부과하면서도 가난을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자들에게 얼마만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떠한 경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성서학이나 신학은 이러한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사회과학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뜬 구름 잡는 공허한 학문으로 전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미쉬파트’, ‘체다카’, ‘체데크’, ‘디카이오쉬네’ 등등의 낱말들은 그 본래적 의미를 올바로 규명한 결과 많은 경우에 사회 정의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그러한 개념의 용어들을 어떠한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차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표 1>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창 18:19	[의와] 공도	[의와] 공도	[옳고] 바른 일	[옳고] 바른 일	[정의와] 공정	[righteousness and] justice	what is [right and] just	what is [upright and] just	[Gerechtigkeit und] Recht
18:25	공의	정의	공정하셔야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공정을 실천하셔야	what is just	what is just	to act justly	Recht
출 23:6	공평치 않게	정의를 굽게	권리	불리한 판결	권리	justice	justice	rights	das Recht
레 19:15	재판할 때에	재판할 때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	재판할 때에는	재판할 때	an unjust judgment	justice	in administering justice	im Gerichte
신 16:19	굽게 판단하지	재판을 굽게	법을 왜곡시키면	재판에서 공정성을	공정을 왜곡해서도	distort justice	pervert the course of justice	pervert the law	das Recht beugen
24:17	송사를 억울하게	송사를 억울하게	인권을 짓밟지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권리를 왜곡해서는	justice	justice	the rights	das Recht
27:19	송사를 억울하게	송사를 억울하게	인권을 짓밟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권리를 왜곡하는	justice	justice	the rights	das Recht
32:4	공평하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 [올바르고]	올곧다 [의로우시고]	올바르다 [의로우시고]	just [upright]	just [righteous]	equitable [Upright]	Recht [Gerecht]
삼상 8:3	판결을 굽게	판결을 굽게	법대로 다스리지	치우치게 재판을	판결을 그르치게	pervert justice	pervert the course of justice	gave biased verdict	beugten das Recht
삼하 8:15	공[과 의]	정의[와 공의]	공평[무사] 하게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공정 [과 정의]	justice [and equity]	law [and justice]	law [and justice]	Recht [und Gerechtigkeit]
15:6	재판	재판	재판	판결	재판	judgment	justice	tribunal	Rech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왕상 3:11	송사	송사	옳은 것을 가려내는	재판하는 데에 무엇이 옳은지	옳은 것을 가려내는	what is right	in administering justice	a(discerning) judgment	das Recht
3:28	판결함	판결함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to execute justice	to administer justice	for dispensing justice	um Recht zu sprechen
7:7	재판(하는 낭실)	재판(하는 주랑)	재판(홀)	재판(정)	재판(별실)	(the Hall) of Justice	(the Hall) of Judgment	(the Hall) of Justice	die Gerichts(halle)
10:9	공[과 의]	정의[와 공의]	법[과 정의]	공평[과 정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law [and justice]	law [and justice]	Recht [und Gerechtigkeit]
대상 18:14	공[과 의]	정의[와 공의]	공평[무사]하게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equity]	law [and justice]	law [and justice]	Recht [und Gerechtigkeit]
대하 9:8	공[과 의]	정의[와 공의]	바른 정치	공평[과 정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law [and justice]	law [and justice]	Recht [und Gerechtigkeit]
욥 8:3	심판[+...공의]	정의[+...공의]	바른 것 [+...옳은 것]	심판[+...공의]	공정[+...정의]	justice [+...the right]	judgment [+...justice]	the courts of right [+...justice]	das Recht [+...die Gerechtigkeit]
9:19	심판	심판	법	재판	법	(a matter of) justice	justice	court	das Recht
19:7	신원(伸冤)함	정의	시비를 가릴 법	귀를 기울이는 이	법	justice	justice	judgment	Recht
27:2	(나의) 의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	공정한 판결	(나의) 권리	(my) right	justice	justice	Recht
29:14	[義...]공의	[義...]정의	[정의...]공평	[정의...]공평하게	[정의...]공정	[righteousness ...] justice	[righteousness ...] justice	[uprightness ...] fair judgment	[Gerechtigkeit...] das Recht
31:13	사정	권리	인권	그들이 하는 말	권리	the cause	the plea	the rights	das Rech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32:9	공의	정의	바른 판단	시비	올바른 것	what is right	what is right	fair judgment	was recht ist
34:4	옳은 것	정의	바른 판단	옳은 것	올바른 것	what is right	what is right	God's ruling	das Rechte
34:5	내 의	내 의	나에게 죄를 주신다	나의 옳음	내 권리	my right	justice	fair judgement	mein Recht
34:12	공의	공의	의	정의	올바른 것	justice	justice	what is just	das Recht
34:17	공의	정의	공평	정의	올바른 것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das Recht
36:17	[심판과] 공의	[심판과] 정의	법으로 다스리는 재판	[심판과] 벌	[심판과] 재판	[judgment and] justice	the business of the law	fair judgment	[Urteil und] Gericht
37:23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	정의나 [무한한 공의]	억울한 일	의롭게 하시고 [정의를 대하시다]	공정[+...정의]	justice [and abundant righteousness]	righteousness [+...justice]	equity [+... saving justice]	Gerechtigkeit [+das... Recht]
40:8	내 심판	내 공의	나의 판결	내 판결	나의 공의	put me in the wrong	put me in the wrong	put me in the wrong	3절: mir Unrecht geben
시 7:6	심판	심판	판결	판결	심판	a judgment	justice	judgment	Gericht
9:16	심판	심판	공정한 재판관	공정한 심판	심판(하시니)	judgment	justice	judgment	Gericht
25:9	공의로	정의로	옳은 길로	공의로	올바른 길	in what is right	in doing right	judiciously	nach dem Rechte
33:5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	[옳고] 바른 일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정	[righteousness and] justice	[righteousness and] justice	[uprightness and] justice	[Gerechtigkeit und] Recht
36:6	[주의 의] (주의) 판단	[주의 의] (주의) 심판	[당신의 공변되심] (당신의) 공평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공평하심	[당신의 정의] (당신의) 공정	[your righteousness] (your) judgments	[thy righteousness] (thy) judgments	[your saving justice] (your) judgments	[deine Gerechtigkeit] (deine) Gerichte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37:6	[네 의] (네) 공의	[네 의] (네) 공의	[너의 옳음] (네) 권리	[너의 의] (너의) 공의	[네 정의] (네) 공정	[your vindication] the justice of your cause	[your righteousness] the justice of your cause	[your uprightness the justice of your cause	[dein Recht] (deine) Gerechtigkeit
37:28	공의	정의	정의	공의	올바른 것	justice	justice	justice	das Recht
37:30	공의	정의	정의	공의	올바른 것	justice	justice	what is right	zum Recht
72:1	(주의) 판단력 [주의 의]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올바른 통치력 [정직한 마음]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의]	(당신의) 공정 [당신의 정의]	(your) justice [your righteousness]	(thy own) justice [thy righteousness]	(your own) fair judgment [your own saving justice]	(dein) Gericht [deine Gerechtigkeit]
72:2	[의로] 공의로	[공의로] 정의로	[공정한 판결] 권리	[정의로] 공의로	[정의로] 공정으로	[with righteousness] with justice	[rightly] justice	[with justice] with fair judgment	[mit Gerechtigkeit] nach dem Recht
89:14	[의와] 공의	[의와] 공의	[정의와] 공정	[정의와] 공정	[정의와] 공정	[righteousness and] justice	[righteousness and] justice	[saving Justice and] Fair Judgment	[Recht und] Gerechtig keit
94:15	판단 [의]	심판 [의]	법정 [정의]	판결 [정의]	재판 [정의]	justice [the righteous]	judgment [righteousness]	judgment [saving justice]	Richtergewalt [Gerechten]
97:2	[의와] 공평	[의와] 공평	[정의와] 공정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정	[righteousness and] justice	[righteousness and] justice	[saving justice and] justice	[Recht und] Gerechtig keit
99:4	공의	정의	정의	정의	공정	justice	justice	justice	das Recht
99:4	공[과 의]	정의[와 공의]	공의[와 법]	공의[와 정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justice [and uprightness]	Recht [und Gerechtigkeit]
101:1	공의	정의	정의	정의	공정	justice	justice	judgment	Recht
103:6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판단(하시는데 다)	[공의로운 일] 심판(하시는데 다)	[정의를 퍼시고] 권리(를 찾아주신다)	[공의를 세우시며] 권리(를 변호하신다)	[정의를 실천하시 고] 공정(을 배우신다)	[vindication and] justice	[righteous in his acts] justice	[with uprightness and] with justice	[Taten des Heils] Rech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106:3	공의[의]	정의[공의]	바로 살고 [옳은 일]	공의 [정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act justly [and do right]	what is just [upright]	das Recht [die Gerechtigkeit]
112:5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모든 일을) 양심으로 (처리한다)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with justice	with judgment	honest	nach dem Recht
119:121	공(과 의)	정의(와 공의)	결정(과 정의)	공의(와 정의)	공정(과 정의)	what is just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just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140:12	공의	정의	정의	공의	권리	justice	justice	justice	ihr Recht
잠 1:3	[의롭게] 공평하게 행할 일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할 일	무엇이 [옳고] 바르며	[정의와] 공평과	[정의와] 공정과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uprightness] justice	[Gerechtigkeit] Sinn für das Recht
2:8	공평의 길	정의의 길	바른길 걷는 사람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	공정의 길	of justice	of justice	of equity	des Rechtes
2:9	[공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	[옳고] 바른 길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정	[righteousness] justice	what is [right and] just	[uprightness and] equity	was [Recht und] Gerechtigkeit ist
8:20	[의로운 길] 공평한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옳은 길] 바른길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정의의 길] 공정의 길	[the way of righteousness the paths of justice	[the course of virtue] the path of justice	[the way of uprightness] the path of justice	[Pfad der Gerechtigkeit] Bahne des Rechten
13:23	불의로 인하여	불의로 말미암아	정의가 사라지면	불의가 판을 치면	불의에 휩쓸려	through injustice	through injustice	for lack of justice	durch Unrecht
16:8	[의를 겸하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공의를 겸하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정직하게] 불의하게	[의롭게 살면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정의로 가진 적은 것이] 불의로 얻은 많은 소득보다	[a little with righteousness] large income with injustice	[a pittance honestly earned] great gains ill gotten	[have little with it uprightness] great revenues with injustice	[wenig mit Gerchtigkeit] groses Einkommen mit Ungerechtigkei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17:23	재판	재판	그릇된 판결	재판	올바른 길	the ways of justice	the course of justice	the course of justice	den Gang des Rechtes
18:5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무죄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	재판에서 의인을 억누르려고	to subvert the innocent in judgment	deprive the righteousness of justice	deprive the upright when giving judgment	die Sache des Schuldlosen im Gericht zu beugen
19:28	공의	정의	정의	정의	법	justice	justice	holds the law in scorn	das Recht
21:3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	[올고] 바르게 사는 것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정	[righteousness and] justice	what is [right and] just	what is [upright and] just	[Recht und] Gerechtigkeit
21:7	공의	정의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	공정의 실천	to do what is just	to do what is just	to do what is right	was recht ist
21:15	공의	정의	바르게 사는 것	정의를 실현될 때에	공정을 실천하는 것	when justice is done	when justice is done	doing what is right	wenn Recht geschafft wird
28:5	공의	정의	바른 일	공의	바른 것	justice	what justice is	what justice means	was recht ist
29:4	공의	정의	정의	공의	공정	by justice	by just government	by justice	durch Recht
29:26	(사람의) 일의 작정	(사람의) 일의 작정	판결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사람의) 권리	that one gets justice	in every case the Lord decides	the rights (of each man)	(einem jeden) sein Recht
전 5:8	공의	정의[와 공의를]	인권	법[과 정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	right [and justice]	fair judgment [and justice]	Recht [und Gerechtigkeit]
사 1:17	공의	정의	바른 삶	정의	공정	justice	justice	justice	Recht
1:21	공평 [의리]	정의 [공의]	법 [정의]	정의 [공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fair judgment [saving justice]	das Recht [Gerechtigkei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1:27	공평으로 [의로]	정의로 [공의로]	그기들이 바로잡히고 [마음이] 바로잡혀	정의로 [공의로]	공정으로 [정의로]	by justice [by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by fair judgment [by saving justice)	durch Recht [durch Gerechtig keit)
5:7	공평 [의로움]	정의 [공의]	공평 [정의]	선한 일 [옳은 일]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fair judgment [uprightness]	Guttat [Rechtsspruch]
5:16	공평하므로 [의로우시므로]	정의로우시므 로 [공의로우시므 로]	공평하심으로 [정의로]	공평하셔서 [의로우셔서]	공정으로 [정의로]	by justice [by righteousness]	in judgement [by righteousness]	for his judgment [by his ustice]	durch das Gericht [durch Gerechtigkeit]
9:7	공평 [과 정의로]	정의 [와 공의로]	법 [과 정의 위에]	공평 [과 정의로]	공정 [과 정의로]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ness]	in fair judgment [and integrity)	durch Recht [und Gerechtigkeit]
10:2	권리	권리	권리	권리	권리	their right	their rights	fair judgment	das Recht
16:5	공평 [의]	정의 [공의]	법 [정의]	옳은 일 [정의]	공정 [정의]	justice [what is right]	justice [right]	fair judgment [uprightness]	das Recht [die Gerechtigkeit]
28:6	판결하는	판결하는	공정한	공평의	공정의	of justice	of justice	of fair judgment	des Gerichtes
28:17	공평 [의]	정의 [공의]	법 [정의]	공평 [공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fair judgment [uprightness]	das Recht [die Gerechtigkeit]
30:18	공의의	정의의	공평무사하신	공의의	공정의	of justice	of justice	of fair judgment	des Rechtes
32:1	[의로] 공평으로	[공의로] 정의로	[정의로] 법대로	[공의로] 공평으로	[정의로] 공정으로	[in righteousness] with justice	[in righteousness] with justice	[uprightly] with fair judgment	[nach Gerechtigkeit] nach dem Rechte
32:7	바르게	바르게	권리	정당한 권리	올바른 것	right(adj.)	justice	right(n.)	was recht is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32:16	공평 [의]	정의 [공의]	법 [정의]	공평 [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fair judgment [uprightness]	das Recht [die Gerechtigkeit]
33:5	공평[과 의]	정의[와 공의]	법[과 정의]	공평[과 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justice [and righteousness]	fair judgment [and saving justice]	Recht [und Gerechtigkeit]
40:14	공평의	정의의	올바른	공평의	올바른	of justice	justice	of judgment	des Rechten
42:1	공의	정의	바른 인생길	공의	공정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die Wahrheit
42:3	공의	정의	바른 인생길	공의	공정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die Wahrheit
42:4	공의	정의	바른 인생길	공의	공정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die Wahrheit
51:4	공의	공의	법	의	공정	justice	law	saving justice	Wahrheit
56:1	공평 [의] [의]	정의 [의] [공의]	바른 길 [옳은 삶] [승리]	공평 [공의] [의]	공정 [정의] [의로움]	justice [what is right] [deliverance]	justice [the right] [righteousness]	fair judgment [with justice] [saving justice]	das Recht [Gerechtigkeit]
59:8	공의	정의	정의	공평	공정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Recht
59:9	공평 [의]	정의 [공의]	공평 [정의]	공평 [공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	fair judgment [uprightness]	das Recht [das Heil]
59:11	공평	정의	공평	공평	공정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das Recht
59:14	공평 [의]	정의 [공의]	공평 [정의]	공평 [공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fair judgment [saving justice]	das Recht [das Heil]
59:15	공평	정의	공평	공평	공정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Rech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61:8	공의	정의	공평	공평	올바름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das Recht
렘 4:2	공평 [정의]	정의 [공의]	?	공평 [정의]	공정 [정의]	justice [uprightness]	justice [uprightness]	justly [uprightly]	in Recht [und Gerechtigkeit]
5:1	공의	정의	바르게 살며	바르게 일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acts justly	acts justly	does right	übt Recht
5:28	송사	재판	송사	권리	재판	the rights	justice	the rights	ihr Recht
7:5	공의	정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살면서	올바른 일	justly	fairly	fairly	Recht schaffen
9:24	공평 [정직]	정의 [공의]	법 [정의]	공평 [공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	justice [uprightness]	Recht [und Gerechtigkeit]
10:24	너그러이	너그러이	법대로	너그럽게	공정하게	in just measure	with justice	with moderation	nach Billigkeit
12:1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옳은	옳으시다	정의로우신	be in the right	be just	your uprightness	beliben im Recht
21:12	공평히 판결하여	정의롭게 판결하여	바른 판결	공의로운 판결	공정한 판결	justice	justice	fair judgment	Recht
22:3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	법[과 정의]	공평[과 정의]	공정[과 정의]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justly [and fairly]	uprightly [and justly]	Recht [und Gerechtigkeit]
22:15	공평[과 의리]	정의[와 공의]	법[과 정의]	법[과 정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justly [and fairly]	what is just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23:5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	올바른 정치	공평[과 정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law [and justice]	what is just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30:11	공도(公道)로	법에 따라	법대로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in just measure	as you deserve	in moderation	nach Billigkeit
33:15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	올바른 정치	공평[과 정의]	공정[과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	law [and justice]	what is just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46:28	공도(公道)로	법대로	결코 심하게는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in just measure	as you deserve	as you deserve	nach Billigkeit
겔 18:5	법[과의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죄가 없다고	법[과 의를]	공정[과 정의]	what is lawful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law-abiding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18:19	법[과 의]	정의[와 공의]	[바로 살았는데]	법[과 의]	공정[과 정의]	what is lawful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law-abiding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18:21	법[과 의]	정의[와 공의]	[바로 살기만 하면]	법[과 의]	공정[과 정의]	what is lawful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law-abiding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18:27	법[과 의]	정의[와 공의]	[바로 살면]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공정[과 정의]	what is lawful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law-abiding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22:29	불법하게	부당하게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부당하게	without redress	unjust and cruel	in a way that is unjustifiable	widerrechtlich
33:14	법[과 의 대로]	정의[와 공의로]	올바로 살기만 하면	법[과 의]	공정[과 정의]	what is lawful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what is just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33:16	법[과 의]	법[과 의]	올바로 살았으니	법[과 의를 따라서]	공정[과 정의]	what is lawful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what is just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33:19	법[과 의 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올바로 살기만 하면	법[과 의를 따라서]	공정[과 정의]	what is lawful [and right]	what is just [and right]	what is just [and upright]	Recht [und Gerechtigkeit]
34:16	공의대로	정의대로	X	공평하게	공정으로	with justice		X	wie es recht ist
45:9	공평[과 공의]	정의[와 공의]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	공평[과 공의]	공정[과 정의]	what is just [and right]	law [and justice]	what is upright [and just]	Recht [und Gerechtigkeit]
호 2:19	[의와] 공변됨과	[공의와] 정의와	[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정	[in righteousness and] in justice	X	[in uprightness and] justice	[in Recht und] Gerechtigkeit
12:6	공의	정의	정의	정의	공정	justice	justice	loyalty	Recht
암 5:7	공법 [정의]	정의 [공의]	공평 [정의]	공의 [정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uprightness]	das Recht [die Gerechtigkeit]

구절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NRSV	NEB	JB(E)	ZB
5:15	공의	정의	법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공정	justice	justice	justice	das Recht
5:24	공법 [정의]	정의 [공의]	정의 [서로 위하는 마음]	공의 [정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righteousness]	justice [uprightness]	das Recht [die Gerechtigkeit]
6:12	공법 [정의]	정의 [공의]	공평 [정의]	공의 [정의]	공정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the process of law [justice]	justice [uprightness]	das Recht [die Gerechtigkeit]
미 3:1	공의	정의	바른 일	정의	공정	justice	what is right	what is right	das Recht
3:8	공의	정의	X	정의감	공정	justice	justice	of right	mit Recht
3:9	공의	정의	정의	정의	올바른 것	justice	justice	justice	das Recht
6:8	공의	정의	정의	공의	공정	justice	to act justly	what is right	das Recht <i>üben</i>
7:9	나를 위하여 심판하시라 신원하기 [그의 의]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기 [그의 공의]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을 내리시기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기 [주님께서 행하신 의]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권리를 찾아주시기 [그분의 의로움]	taking my side and executing judgment for me [his vindication]	taking up my cause and giving judgment for me [his justice]	taking up my cause and righting my wrongs [his saving justice]	sich meiner Sache annehmen und mir Recht schaffen [seine Gerechtigkeit]
합 1:4	공의	정의	정의	공의	공정	justice	justice	justice	das Recht
1:4	공의	정의	정의	공의	공정	the righteous	the righteous	the upright	die Gerechten
습 3:5	공의	공의	밝은 판결	바른 판결/공의	공정	judgment	judgment	judgment	seine Ordnung
습 7:9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judgements	justice	apply the law fairly	Recht
말 2:17	공의의	정의의	공변되신	공의로우게 재판하시는	공정의	of justice	of justice	of fair judgment	des Gerichts

<표 2>

절수	Heb	개역	개개	공동	새번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욥 40:8	나의 미취파트 (단)	나를 불의하다	내 공의	나의 판결	내 판결	나의 공의	my judgment	that I am just		My judgment	my judgment	my judgment	mein Recht
시 36:6	당신의 미- (단)	주의 판단	주의 심판	당신의 공평하심	주님의 공평하심	당신의 공정	thy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justice	your saving justice	deine Gerichte
48:11	당신의 미- (복)	주의 판단	주의 심판	당신의 공정하신 심판	주님의 구원의 능력	당신의 심판	thy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judgments	your saving justice	dein Gericht
72:1	당신의 미- (복)	주의 판단력	주의 판단력	올바른 통치력	주님의 판단력	당신의 공정	thy judgments	thy own justice	your justice	Thy judgments	your justice	your own fair judgment	dein Gericht
97:8	당신의 미- (복)	주의 판단	주의 심판	당신의 재판은 공이하시오 나	주님이 공이하우심	당신의 법규	thy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judgments	your judgments	deine Gerichte
105:7	그의 미- (복)	그의 판단	그의 판단	(온 상을) 바로 다스리시는 분	(온 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판결들	the judgments of his mouth	his judgments		His judgments	his judgments	his judgments	sein Gericht
사 26:8	당신의 미- (복)	주의 심판하시 는	주께서 심판하시 는	당신의 재판	당신의 율법	당신의 판결	thy judgments	thy laws	your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laws	your judgments	deine Gerichte
26:9	당신의 미- (복)	주께서 심판하시 는 때에	주께서 심판하시 는 때에	당신의 법	주님께서 심판하시 는 때에	당신의 판결들	thy judgments	thy laws	your judgments	Thy judgments	your judgments	your judgments	deine Gerichte

절수	Heb	개역	개개	공동	새번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51:4	나의 미-(단)	내 공의	내 공의	나의 법	나의 의	나의 공정	my judgment	my judgment	my justice	My justice	my justice	my saving justice	meine Wahrheit
렘 1:16	나의 미-(복)	나의 심판	나의 심판	이렇게 심판하리라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까닭은	심판의 말	my judgments	my case	my judgments	My judgments	my judgments	my judgments	mein Urteil
5:4	하나님의 미-(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느님의 법	the judgment of their God	the ordinances of their God	the law of their God	the ordinance of their God	the requirements of their God	the ruling of their God	das Recht ihres Gottes
5:5	하나님의 미-(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느님의 법	the judgment of their God	the ordinances of their God	the law of their God	the ordinance of their God	the requirements of their God	the ruling of their God	das Recht ihres Gottes
호 6:5	나의 미-(복)	내 심판	내 심판		나의 심판	나의 심판	thy judgments		my judgment	the judgment on you	my judgments	my sentence	mein Gericht
슥 3:5	그의 미-(단)	자기의 공의	자기의 공의	밝은 판결	바른 판결/공의	당신의 공정	his judgment	judgment	his judgment	His justice	his justice	judgment	seine Ordnung

<표 3>

절수	Heb	개역	개개	공동	새번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민 27:5	그들의 미-(단)	그 사연	그 사연	그들의 요구	그들의 사정	그들의 소송건	their cause	their case	ihre Rechtssche				
신 21:17	말이의 미-(단)	장자의 권리	장자의 권리	말이들의 권리	말아들의 권리	말아들의 권리	the right of the firstborn	das Recht der Erstgeburt					

절수	Heb	개역	개개	공동	새번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왕상 8:49	그들의 미- (단)	저희의 일	그들의 일	정의	그들의 사정	그들의 사정	the cause of his people	justice	their cause	their cause	their cause	their cause	ihnen Recht
8:59	그의 종의 미-(단)	주의 종의 일	주의 종의 일	당신의 종의 권리	주님의 종의 형편	당신 종의 사정	the cause of his servant	justice to his servant	the cause of his servant	the cause of His servant	the cause of his servant	the cause of his servant	Recht seinem Knechte
대하 6:35	그들의 미- (단)	그 일	그들의 일	정의	그들의 사정	그들의 사정	their cause (난외: right)	justice	their cause	their cause	their cause	their cause	ihnen Recht
6:39	그들의 미- (단)	저희의 일	그들의 일	정의	그들의 사정	그들의 사정	their cause (난외: right)	justice	their cause	their cause	their cause	their cause	ihnen Recht
욥 27:2	나의 미- (단)	나의 의	나의 정당함	나의 옳음	공정한 판결	나의 권리	my judgment	me justice	my right	my right	me justice	me justice	mir mein Recht
시 9:4	나의 미-(단)	나의 의	나의의	나에게 죄없다 판단	공정한 판결	제 권리	my right	my right	my just cause	my just cause	my right	fair judgment	mein Recht
17:2	나의 미- (단)	나의 판단	나를 판단하시 며	“너는 죄없다” 판단하소 서	“너는 죄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승소판결	my sentence	judgment in my cause	my vindication	my judgment	my vindication	my vindication	mein Recht
35:23	나의 미- (단)	나를 공판하시 며	나를 공판하시 며	재판하소 서	재판을 여시고	저의 권리를 위하여	my judgment	to do me justice	my defense	my right	my defense	my defence	mir Recht zu schaffen
37:6	나의 미- (단)	네 공의	네 공의	네 권리	네 공의	네 공정	thy judgment	the justice of your cause	the justice of your cause	your judgment	the justice of your cause	the justice of your cause	deine Gerechtigke it

절수	Heb	개역	개개	공동	새번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140:12	가난한 자들의 미- (단)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궁핍한 자에게 정의	가난한 자에게 정의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	불쌍한 이에게 권리	the right of the poor	justice to the downtrodden	justice for the poor	justice for the poor	the cause of the needy	justice for the needy	deb Armen ihr Recht
146:7	압박당하는 이를 위하여 미- (단)	압박당하는 이를 위하여 공의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	억눌린 자들의 권익	억눌린 자들을 위해 공의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	judgment for the oppressed	justice to the oppressed	justice for the oppressed	justice for the oppressed	the cause of the oppressed	justice to the oppressed	den Unterdrückten Recht
사40:27	나의 미- (단)	내 원통한 것	내 송사	내 권리	나의 정당한 권리	나의 권리	my judgment	my cause	my right	the justice due me	my cause	my rights	mein Recht
렘 5:28	가난한 사람들의 미- (단)	빈민의 송사	빈민의 재판	빈민들의 송사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가난한 이들의 재판	the right of the needy	justice to the poor	the rights of the needy	the rights of the poor	the rights of the poor	the cause of the needy	die Sache der Witwe
애 3:35	한 사람의 미- (단)	사람의 재판	사람의 송사	남의 인권	인권	인간의 권리	the right of a man	his right	human rights	justice	his rights	human rights	das Recht des Mannes
3:59	나의 미- (단)	나를 위하여 신원(하 음 소서)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소서)	바른 판결 (을 내려 주소서)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소 서)	저의 권리 (를 되찾아 주소서)	my cause	gravest judgment in my favor	my cause	my case	my cause	my cause	zu meinem Rechte
겔 16:38 [23:45]	간음녀의 미- (복)	간음한 여인을 국문함 (같이)	간음한 여인을 심판함 (같이)	간음한 죄인	간음한 여인을 재판 (하듯이)	간음한 여자들을 재판 (하듯이)	as adulterous women are judged	trial for adultery	as adulterous women are judged	like women who commit adultery are judged	the punishment of adulterous women	the sentence that the adulteresses receive	wie man Ehebrecherinnen richtet
호 6:5	너의 미- (복)	내 심판	내 심판		나의 심판	나의 심판	thy judgments		your judgments	the judgments on you	your judgments	my sentence	mein Recht

절수	Heb	개역	개개	공동	새번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미 7:9	나의 미(단)	(나를)신원하시기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재판을 내리시기까지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권리를 찾아주시기까지	judgment for me	judgment for me	judgment for me	justice for me	my right	(until he rights) my wrongs	mir Recht (schafft)
습 3:15	너의 미(복)	너의 형벌	네 형벌	너를 벌하던 자들	징벌	너에게 내리신 판결	thy judgments	your adversaries	the judgments against you	His judgments against you	your punishment	your sentence	deine Widersacher

<표 4>

절수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출 23: 7	악인을 의롭다하지 않겠노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 하겠노라	악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마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인을 죄없다고 하지 않는다	not justify the wicked	never acquit the guilty	not acquit the guilty	not acquit the guilty	not acquit the guilty	not acquit the guilty	nicht dem, der im Unrecht ist, Recht geben
신 25: 1	의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옳은 이에게는 무죄를 선언해야 하고	justify the righteous	acquit the innocent	declaring one to be in the right	justify the righteous	acquitting the innocent	declare the one who is right to be in the right	gibt demjenigen Recht, der im Rechte ist
삼하 15:4	내게로 오는 자에게 공의 베풀기를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으시오	누구든지 내 소송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으시오	나는 그들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텐데	and I would do him justice	see that everyone who...got justice from me	and I would give them justice	and I would give him justice	and I would see that he gets justice	and I should see he had justice	Ich wollte ihm zu seinem Recht verhelfen

절수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왕상 8:32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옳은 일은 옳은 사람이 없다고 판결하시어서 그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의로운 이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그의 의로움에 따라 그에게 갚아 주십시오	and justifying the righteous	acquitting the innocent and rewarding him as his innocence may deserve	and vindicating the righteous by rewarding them according to their righteousness	and justifying the righteous by giving him according to his righteousness	declare the innocent not guilty and so establish his innocence	and acquitting the upright by rewarding him as his uprightness deserves	den Unschuldigen aber unschuldig erklärt und ihm anch seiner Unschuld tust
대하 6:23	"	"	"	"	"	"	"	"	"	"	"	"
시 82:3-4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찌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리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찌니라	악한 자와 고아를 보살피고 없는 이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권리를 찾아주며 가난한 자와 약자를 풀어 주어라.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자를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악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악한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라.	Defend the poor and fatherless: do justice to the afflicted and needy. Deliver the poor and needy: rid them out of the hand of the wicked.	You ought to give judgement for the weak and the orphan, and see right done to the destitute and down-trodden, and you ought to rescue the weak and the poor, and save them from the clutches of the wicked men.	Give justice to the weak and the orphan; maintain the right of the lowly and the destitute. Rescue the weak and the needy; deliver them from the hand of the wicked.	Vindicate the weak and the fatherless; Do justice the afflicted and destitute. Rescue the weak and needy; Deliver them out of the hand of the wicked.	Defend the cause of the weak and fatherless; maintain the rights of the poor and oppressed. Rescue the weak and needy; deliver them out of the hand of the wicked.	Let the weak and orphan have justice, be fair to the wretched and the destitute. Rescue the weak and the needy, save them from the clutches of the wicked.	Seid Richter dem Geringen und der Weise und helft dem Elenden und Dürftigen zum Recht. Rettet den Geringen und Armen, befreit ihn aus der Hand der Gottlosen.

절수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잠 17: 15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죄를 무죄로 돌리거나 유죄로 다루는 것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악인을 무죄라 하는 자, 의인을 유죄라 하는 자	He that justifieth the wicked, and he that condemneth the just	To acquit the righteous and condemn the righteous	One who justifies the wicked, and one who condemns the righteous	He who justifies the wicked, and he who condemns the righteous	Acquitting the guilty and condemning the innocent	To absolve the guilty and condemn the upright	Wer den Schuldigen fresspricht und wer den Unschuldigen verdammt
사 5:23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에 눈이 어두워 죄인들을 의롭다하고 사악한 자들을 악인이라 하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뇌물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which justify the wicked for reward, and take away the righteousness of the righteous from him!	who for a bribe acquit the guilty and deny justice to those in the right	who acquit the guilty for a bribe, and deprive the innocent of their rights	who justify the wicked for a bribe, and take away the rights of the ones who are in the right	who acquit the guilty for a bribe but deny justice to the righteous	who acquit the guilty for bribe and deny justice to the upright	die dem Schuldigen Recht geben um Besstechung und dem Unschuldigen sein Recht absprechen!

절수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사 50:8-9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름 자가 누구뇨...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름 자가 누구냐...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느님께서 나의 죄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라?...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데 누가 감히 나를 그르다고 하느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고소할 자 누구냐?...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있다 하겠느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 가?...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He is near that justifieth me; who will condemn with me?...Behold, the Lord will help me; who is tir that shall condemn me?	Who dare argue against me?... Who will dispute my cause?... The Lord God will help em; who then can prove me quality?	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will contend with me?...It is the Lord God who helps me; who will declare me guilty?	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will condtend with Me?...Berhold, the Lord God helps Me; Who is he who condemns Me?	He who vindicates me is near. Who then will bring charges against me?... He who	He who grants me saving justice is near! Who will bring a case against em?...Lokk, The Lord Yahweh is coming to my help! Who dares condemn me?	Er, der mir Recht schafft, ist nahe; wer will wit mir hadern?...Wer will mit mir rechten?... Siehe, Gott der Herrsteht mir bei; wer will mich verdammen?
사 53:11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 떴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by his knowledge shall my righteous servant justify many: for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so shall he, my servant, vindicate many, himself bearing the penalty of their guilt.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shall make many righteous, and he sahl bear their iniquies.	By His knowledge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will justify the many, as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by his knowledge my righteous servant will justify many, and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By his knowledge, the upright one, my servant will justify many, by taking their guilt on himself.	durch seine Erkenntnis wird er, der Gerechte, mein Knecht, vielen Gerechtigkeit schaffen, und ihre Verschuldungen wird er tragen.

절수	개역	개역개정	공동	새번역	가성	AV	NEB	NRS	NAS	NIV	JBE	ZB
겔 16:51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저지른 온갖 악을 생각하면 네 언니와 아우는 도리어 죄가 없는 편이다	네가 저지른 온갖 악들로 너는 네 언니와 아우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네가 저지른 그 모든 악들로, 너의 자매들이 오히려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and hast justified thy sisters in all thine abominations which thou hast done.	you have made more abominations than she, abominations which have made your sister seem innocent.	you have committed more abominations than they, and have made your sisters seem appear righteous by all the abominations that you have committed.	Thus you have made your sisters appear righteous by all your abominations which you have committed.	you have made your sisters seem righteous by all these things you have committed.	By all your loathsome practices you have made your sisters seem innocent.	und du hast so deine Schwestern gerecht erscheinen lassen durch alle die Greuel, die du verübt hast.
단 12:3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대중을 바로 이끈 자들은 지 밝은 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이들은 별처럼 무궁히 빛날 것이다.	and they that turn many to righteousness as the stars for ever and ever.	and those who have guided the people in the true path shall be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and those who lead the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and those who have instructed many in uprightness, as bright as stars for all eternity.	und, die viele zur Gerechtigkeit geführt, wie die Sterne immer und ewig.